BARUN

출제자의 눈으로 원서를 자른다

원서 해부 노트

Edible Economics · Chapter 16 STRAWBERRY

대상 미추홀외고 원서 강독반
범위 Ha-Joon Chang, Edible Economics — 「Strawberry」 (원서 PDF 120~125쪽)
구성 범위 지도 → 유닛별 정밀 해부(6개 유닛) → 실전 변형 모의고사(16문항+서답형) → 파이널

이 챕터는 한 가지를 묻는다 — "딸기 따는 로봇은 정말 일자리를 없애는가."

이 장은 저자의 아내가 만드는 딸기 '우유'로 시작한다. 딸기는 식물학으로는 베리가 아니지만 사람들에게는 '그' 베리이고, 숨어 있고 무른 열매라 수확에 손이 많이 들어 캘리포니아에서는 멕시코 출신 노동자들이 '악마의 과일'이라 부르며 딴다. 이제 기계화의 마지막 전선인 딸기 수확까지 로봇이 넘보면서 자동화가 일자리를 대부분 없앨 것이라는 공포가 퍼지지만, 저자는 250년 동안 자동화가 일자리를 없애기만 한 것이 아니라 만들어도 왔고 사회가 정책으로 일자리를 늘릴 수도 있다고 말한다. 다만 저자는 일자리를 잃은 사람에게 실업 급여 · 재훈련 · 구직 지원 같은 국가의 뒷받침이 꼭 필요하다고 본다. 딸기가 베리가 아닌데도 '그' 베리가 되었듯, 자동화도 일자리의 '그' 파괴자가 아니라는 것이 저자의 결론이다. 이 노트는 해석을 외우게 하지 않는다. 출제자가 어디를 자를지 네 눈으로 먼저 찾게 만든다.

학교		학년·반		이름	

인천 남동구 논현동 · 010-9968-1387

HOW TO USE

이 노트를 쓰는 법

해석을 외우는 노트가 아니라, 문제가 나올 자리를 찾는 노트입니다.

네 개의 파트, 한 가지 원칙

파트	무엇을 하는가	언제 쓰는가
Part 1 범위 지도	출제 예상 자리표, 문단별 구조도, 대립 구조표, 숫자·고유명사·인물 총정리표	첫 수업 · 시험 전날 재확인
Part 2 유닛별 정밀 해부	유닛마다 원서 위치 → 기호 표시 자리 → 내용 → 어법 포인트 → 어휘(유의어·반의어) → 한 줄 요약	수업 본체 · 매 유닛 과제
Part 3 실전 변형 모의고사	미추홀외고 유형 순서로 16문항 + 서답형 1문항(100점)	Part 2를 다 끝낸 뒤 시간을 재고 풀기(40분)
Part 4 파이널	핵심 문장 12선 영작, 숫자·고유명사 복원표, 통합 사고 문제(11장(호밀)과 연결)	평가 2~3일 전

원칙 하나 – 원서는 네가 직접 칠한다

- 이 노트에는 원문이 실려 있지 않다. 원서를 옆에 펴고, 문장마다 [1] [2] … 번호를 연필로 매긴 다음, Part 2 표의 자리를 찾아 **기호를 직접 그려 넣는다.**
- 매 유닛 과제: 표를 보기 전에 원서에서 **문제가 나올 자리 3곳**을 먼저 표시하고, 왜 그 자리인지 한 줄로 적어 온다. 수업에서 표와 비교한다.
- 틀린 문제는 "왜 그 오답이 매력적이었는지"까지 적어야 끝난 것이다. 정답 번호만 고치는 복습은 복습이 아니다.

기호 범례

▲ 어법 함정 후보 ● 어휘 반전 후보(반의어 바꿔치기) ★ 빈칸·요약문 후보 ◆ 밑줄 의미·지칭 추론 후보

쪽수는 원서 PDF의 쪽 번호입니다(PDF 쪽 아래에 인쇄된 번호보다 1 큽니다). 단락 번호(¶)는 그 쪽에서 새로 시작하는 단락만 셉니다. 앞 쪽에서 이어지는 단락의 끝부분은 '○쪽 첫 줄'로 표시합니다. 들여 쓴 인용문과 장 끝의 각주는 단락 수에 넣지 않고 '○쪽 인용' · '○쪽 각주'로 표시합니다. 종이책을 쓰는 경우 단락의 첫 단어로 위치를 맞추세요.

PART 1

범위 지도

어떻게 나오는지 알면, 무엇을 공부할지가 정해진다.

1-1. 유형별 출제 예상 자리 — 미추홀외고 유형 기준

미추홀외고 영어 지필평가의 유형 순서(주장·요지·제목 → 밑줄 의미 → 지칭 → 내용 일치 → 어법 → 어휘 → 빈칸 → 문장 삽입 → 무관한 문장 → 순서 → 요약문 → 서답형)를 이 챕터에 적용해, 각 유형이 어디서 나올지 예측했다. Part 3 모의고사는 이 순서를 따른다.

번호	유형	이번 범위에서 예상되는 출제 자리
1~3	주장·요지·제목	실직자에게는 국가의 폭넓은 지원이 필요하다(124쪽 ¶2~¶3) / 자동화는 '그' 일자리 파괴자가 아니다 — 있는 그대로 보자(124쪽 ¶4~125쪽 ¶1) / 지금까지 자동화의 전체 영향은 부정적이지 않았다(122쪽 ¶5 · 123쪽 ¶4~124쪽 첫 줄) / 자동화는 일자리를 만들기도 한다(123쪽 첫 줄)
4~5	**밑줄 함축 의미**	'the' berry / la fruta del diablo, the fruit of the devil / the final frontier of agricultural automation / class hypocrisy / 'Luddites' / does not only destroy jobs, it also creates them / 'higher' needs / it is different this time around / laughed in your face / no consolation / effective (not just cosmetic) help / see automation for what it is
6	지칭 추론	they · They(121쪽 ¶2 = strawberries) / They(121쪽 ¶3 셋째 문장 = 대부분의 농장) / whom(121쪽 ¶4 = 캘리포니아 농업 노동자) / they(121쪽 ¶5 끝 = 미등록 노동자) / they(122쪽 ¶3 = blue-collar workers) / they(122쪽 ¶4 = 평론가 계층) / she · he(124쪽 ¶1 = 영국 여성 · 일본 기계공) / It · its(124쪽 ¶2 = automation) / They(124쪽 ¶3 = displaced workers)
7~8	내용 일치·불일치	베리인 것 · 아닌 것(120쪽 ¶1 · 125쪽 각주 i) / Eton mess(allegedly) / 125쪽 각주 ii~vi / 80% 이상 · 약 70% · 적어도 절반 · 4~5인치 · 8~12인치 · 10~12시간 · 절반가량 · 1880년대 · 2017 · 1771 · 1785 · 250년 · 98% · 4배 · 1930년대 · 최대 80% · 1900 · 1950 · 1951 · 50년
9~10	**어법**	Neither + 동사 + 주어 · only to V · 형용사 + enough to V · 접속사 남긴 분사구문 · together with + 단수 동사 · the only way ~ was to V · too ~ to V · 계속적 which · 수량 표현 + of whom · call + O + C · given + 명사 · on the cusp of -ing · 보어 도치 · find it easy to V · go as far as -ing · keep A from -ing · with + O + 전치사구 · It is ~ that 강조 · then + 동사 + 주어 도치 · 강조의 does · if not · Only when 도치
11	어휘(문맥상 부적절)	tart↔sweet · adventurous↔cautious · labour-intensive↔capital-intensive · viable↔unviable · excruciating↔mild · harsh↔gentle · improving↔declining · heighten↔reduce · chide↔praise · belatedly↔promptly · obsolete↔up-to-date · cosmetic↔substantial
12	빈칸 추론	자동화의 간접 창출 — 한 곳에서 없앤 일자리가 다른 곳에서 생김(123쪽 ¶2) / given the judgement … and the delicacy(122쪽 첫 줄) / Bessen — 직조 노동 98% 감소인데 직조공 4배(123쪽 ¶1) / without a range of state support(124쪽 ¶3)
13	문장 삽입	제철 밖의 딸기(120쪽 ¶4~121쪽 ¶1): 수입 · 온실 → (그 둘이 비쌌다 → 잼) → 다른 과일의 잼 → 토스트 · 스콘 · 홍차 — 지시어(these practices)가 단서
14	무관한 문장	베리의 식물학적 정의(120쪽 ¶1 · 125쪽 각주 i)에 같은 장의 다른 대목(딸기 수확 로봇, 122쪽 ¶1) 끼워 넣기

번호	유형	이번 범위에서 예상되는 출제 자리
15	순서 배열	'이번엔 다르다?'(124쪽 ¶1): 반론과 기술 진보의 본성 → 1900년 영국 여성 → 1950년 일본 기계공 → 50년 뒤 — 연도의 흐름과 Likewise가 단서
16	요약문 완성	정책으로 만드는 일자리(123쪽 ¶3): 1930년대 이후의 정부 지출 · 휴직 제도(최대 80%) · 인력 기준 규제 → 사회가 함께 정해 일자리를 늘린다
서답형	QUIZ(알파벳 완성)	주 · 나라 · 연도 · 비율 · 배수 · True/False 7문항 → 답의 알파벳을 이으면 한 단어. 부분 점수 없음

서답형 전략 — 글자를 이으면 반드시 '사전에 있는 단어'가 되어야 한다

- 이상한 글자 조합이 나오면 하나는 틀린 것이다. 그 자리를 다시 확인하면 된다. **완성된 단어가 자기 검증 장치다.**
- 숫자가 많다 — 80% 이상(캘리포니아의 미국 딸기 생산 비중) · 약 70%(멕시코 출생 농업 노동자) · 적어도 절반(그중 미등록) · 4~5인치(포기) · 8~12인치(두둑) · 하루 10~12시간 · 절반가량(미등록 노동자의 임금) · 1880년대(콤바인) · 20세기 초(트랙터) · 2017(FT) · 1771(Arkwright) · 1785(Evans) · 250년 · 98%(직조 노동 감소) · 4배(직조공) · 1930년대 · 최대 80%(영국 휴직 제도) · 1900 · 1950 · 1951(Player Piano) · 50년 뒤 · 2020년 9월 8일(Guardian). 80%는 두 번 나온다 — 캘리포니아의 딸기 생산 비중(80% 이상)과 영국 휴직 제도의 임금 지급(최대 80%). 나라 · 지역과 인물도 많다(캘리포니아 · 멕시코 · 영국 · 미국 · 러시아 · 일본 · 스웨덴 · 핀란드 · Devon · Cornwall · James Bessen · Richard Arkwright · Oliver Evans · Kurt Vonnegut). 부분 점수가 없으므로 1-4의 표를 '통째로' 외운다.
- True/False 문항은 원서의 한 단어를 뒤집는다(베리 ↔ 베리 아님, 연유를 좋아함 ↔ 크림을 좋아함, 진짜 딸기 있음 ↔ 없음, 80% 이상 ↔ 70%, 절반가량 ↔ 같은 임금, 판단 · 섬세함 ↔ 힘, 아직 사람만 못함 ↔ 사람보다 나음, 직조 노동 98% 감소 ↔ 직조공 4배 증가, 순 파괴자 ↔ 아님, 기술이 일자리 수를 완전히 정함 ↔ 사회가 만들 수 있음). 전언(allegedly — Eton mess) · 짐작(presumably) · 가능성(may · could)을 사실로 바꾼 선지와, 저자의 판단(suggests — 지금까지 부정적이지 않음)을 '자동화는 결코 일자리를 줄이지 않는다'로 넓힌 선지도 조심한다.

1-2. 구조도 — 「Strawberry」 (120~125쪽)

논증형(베리가 아닌 딸기 → 그래도 '그' 베리 · '그' 잼 → 노동 집약적인 수확 → 값싼 이민 노동 · '악마의 과일' → 기계화를 버틴 딸기 수확 → 로봇의 등장과 일자리 공포 → 평론가 계층의 위선 → 자동화는 일자리를 만들기도 한다 → 정책 · 규제로 만드는 일자리 → 지금까지 전체 영향은 부정적이지 않음 → '이번엔 다르다?' → 실직자에 대한 국가 지원 → 결론: 자동화를 있는 그대로 보자). 핵심 축은 **자동화가 없애는 일자리 vs 만드는 일자리**, 그리고 **기술이 정하는 일자리 수 vs 사회가 만드는 일자리**.

위치	역할	한 줄 요약(순서 배열용)
120 [제목]	요리	딸기 '우유'(저자의 아내 Hee-Jeong의 요리) — 딸기를 우유에 으깨고 연유를 더함
120 ¶1	도입	과학적 정의로 딸기는 베리가 아님 · 포도 · 바나나 · 토마토 · 고추 등이 베리 / 125쪽 각주 i: 베리의 정의 · 딸기는 집합과
120 ¶2	'그' 베리	식물학과 상관없이 대부분 사람에게 '그' 베리 · 연유(저자) · 발사믹 식초 · 후추 · 크림(저자는 싫어함)
120 ¶3	디저트	케이크 · 타르트 · 아이스크림 맛의 삼위일체 · Eton mess · strawberry trifle
120 ¶4~121 첫 줄	'그' 잼	수입 · 온실 재배가 비쌌던 몇십 년 전까지 제철 밖의 딸기 = 잼

위치	역할	한 줄 요약(순서 배열용)
121 ¶1	잼의 쓰임	토스트 · 샌드위치 · 크레프 · 스콘과 클로티드 크림(Devon · Cornwall 논쟁에 중립) · 러시아의 홍차
121 ¶2	전환: 노동 집약	잎 사이에 숨어 있고 물러서 수확에 시간이 듦
121 ¶3	부자 나라의 해법	높은 노동 비용 → PYO(일부 작은 농장) · 값싼 이민 노동자
121 ¶4	캘리포니아	미국 딸기의 80% 이상 · 농업 노동자 약 70%가 멕시코 출생 · 그중 적어도 절반 미등록
121 ¶5	'악마의 과일'	가장 박봉이고 힘든 농사일 가운데 하나 · 낮은 포기 · 하루 10~12시간 · 미등록 노동자는 절반가량의 임금 · 학대
122 첫 줄	기계화의 예외	농업은 고도로 기계화(각주 iii) · 딸기 수확은 판단 · 섬세함 때문에 버팀
122 ¶1	로봇의 등장	딸기 따는 로봇의 상업화 직전 · 농업 자동화의 마지막 전선
122 ¶2	일자리 공포	로봇 · AI가 사람을 대체한다는 공포 · FT 프로그램(2017)
122 ¶3~¶4	계급적 위선	블루칼라의 저항을 꾸짖던 평론가들이 화이트칼라가 위협받자 뒤늦게 겁냄 · '러다이트'
122 ¶5~123 첫 줄	반론	250년 동안 대규모 일자리 파괴는 없었음 · 자동화는 일자리를 만들기도 함
123 ¶1~¶2	직접 · 간접 창출	로봇 엔지니어 · Bessen(직조 노동 98% 감소 · 직조공 4배) / 여행 산업 · 생산성 → 새 수요
123 ¶3~124 첫 줄	정책 · 판단	정부 지출 · 휴직 제도(최대 80%) · 규제 / 지금까지 전체 영향은 부정적이지 않음
124 ¶1~¶3	'이번엔 다르다?' · 지원	1900 영국 여성 · 1950 일본 기계공 · CNC / 실직자의 고통 → 실업 급여 · 재훈련 · 구직 지원
124 ¶4~125 ¶1	결론	자동화는 '그' 파괴자가 아님 · 사회가 일자리를 만들 수 있음 · 기술 공포증과 절망 극복

1-3. 대립 구조표 – 선지는 이 축을 뒤집어서 만들어진다

축	이쪽	저쪽(글이 지지하는 쪽)
딸기의 정체	식물학 – 베리가 아님(꽃받기에서 자란 집합과)	사람들 – '그' 베리
베리라는 이름	베리라 불리지만 베리가 아님 – 딸기 · 블랙베리 · 라즈베리	베리라 불리지 않지만 베리 – 포도 · 바나나 · 토마토 · 가지 · 고추 등
딸기 먹는 법(저자의 취향)	좋아함 – 연유 · tarte aux fraises · 스콘과 클로티드 크림	좋아하지 않음 – 크림을 부은 딸기(영국 여름 가든파티)
제철 밖의 딸기	몇십 년 전까지 – 수입 · 온실 재배가 비쌈 → 잼	요즘 – 수입 · 온실 재배로 계절성 극복
과일 수확	사과 · 포도 – 잎에 가려지지 않음	딸기 – 잎에 숨음 · 물러서 멍듦 → 노동 집약
노동자의 처지	멕시코 출신 노동자 대부분 – 박봉 · 가혹한 조건	그중 미등록 노동자 – '합법' 노동자 임금의 절반가량 · 학대 · 경찰에 못 감
농업의 기계화	대부분의 농사 – 쟁기 · 괭이 · 낫 → 트랙터 · 콤바인 · 드론	딸기 수확 – 지금까지 버팀(판단 · 섬세함) → 로봇이 상업화 직전
평론가 계층의 태도	자기 일자리가 안전할 때 – 블루칼라를 '러다이트'라 비난	화이트칼라가 위협받자 – 뒤늦게 실업 · 기술의 영구적 쓸모없어짐을 두려워함

축	이쪽	저쪽(글이 지지하는 쪽)
자동화와 일자리	없앰 — 딸기 따기 · 여행사 · 직조 노동 98%	만듦 — 로봇 엔지니어 · 예약 사이트 · Airbnb · 소규모 투어 · 직조공 4배 · 새 수요
일자리 수의 결정	기술 — 일자리 수를 완전히 정하지는 않음	사회의 선택 — 재정 정책 · 노동 시장 정책 · 규제
실직자의 재취업	이론(자유시장 경제학) — 재훈련해 새 일자리를 얻음	현실 — 국가 지원 없이는 매우 어려움 · 실업 급여 · 저렴한 재훈련 · 구직 지원
'그' ~	딸기 — 베리가 아닌데도 '그' 베리	자동화 — 순 파괴자가 아닌데도 '그' 일자리 파괴자

1-4. 숫자 · 고유명사 · 인물 총정리표 — 서답형과 내용 일치는 여기서 나온다

항목	내용(바꿔치기 주의점)
Strawberry 'milk' ([제목])	저자의 아내 Hee-Jeong의 요리 · 딸기를 우유에 으깨고 연유를 더함
베리의 분류(120쪽 ¶1)	과학적 정의로 딸기 · 블랙베리 · 라즈베리는 베리가 아님 / 포도 · 블랙커런트 · 바나나 · 오이 · 토마토 · 가지 · 수박 · 고추는 베리 / 크랜베리 · 블루베리 · 구스베리는 과학적으로도 베리
125쪽 각주 i	베리 = 씨방 하나를 가진 꽃 한 송이에서 생긴, 씨(핵)가 없는 과육 많은 열매 / 딸기는 씨방이 아니라 씨방을 받치는 꽃받기에서 자람 → '집합과(aggregate fruit)'
딸기 먹는 법	제철의 가장 좋은 딸기는 그것만으로 충분히 달고 맛있음 · 제철 밖에는 조금 시큼 / 설탕 또는 연유(저자는 연유가 더 낫다고 봄) · 발사믹 식초 · 후추 / 영국 여름 가든파티: 크림을 부은 딸기(저자는 좋아하지 않음)
딸기 디저트	케이크 · 치즈케이크 · 타르트(저자는 tarte aux fraises를 특히 좋아함) / 바닐라 · 초콜릿과 함께 아이스크림 맛의 '삼위일체' — 대부분의 '딸기' 아이스크림에는 진짜 딸기가 없음
영국 디저트	Eton mess(딸기 · 부순 머랭 · 크림 / 영국 정치 엘리트를 길러 낸 사립학교 Eton College에서 만들어졌다고 **전해짐**) · strawberry trifle(딸기 · 커스터드 · 셰리에 적신 스펀지 핑거 · 논란의 딸기 맛 젤리 · 크림)
제철 밖의 딸기	요즘: 다른 기후 지역의 수입 · 온실 재배 / 몇십 년 전까지는 비쌌음 → 잼이 유일한 길 / 라즈베리 · 복숭아 · 살구 잼도 있지만 딸기잼이 '그' 잼
딸기잼의 쓰임	버터 바른 토스트(가장 흔함) · 영국 잼 치즈 샌드위치 · 크레프 · 땅콩버터 딸기잼 샌드위치(저자 가족의 PB&J 변형, 「Banana」) · 스콘 + 클로티드 크림(저자가 꼽는 최고) · 러시아: 홍차에 넣어 단맛 · 타닌 맛 상쇄
125쪽 각주 ii	Devon 방식 = 크림 먼저 · Cornwall 방식 = 잼 먼저 / 저자는 엄격한 중립(둘 다 괜찮음)
노동 집약적인 수확(121쪽 ¶2~¶3)	사과 · 포도와 달리 잎 사이에 숨어 있어 찾는 데 시간 · 물러서 멍들기 쉬움 / 부자 나라: 큰길에서 가까운 작은 농장의 PYO(pick your own) — 대부분 농장엔 해법 아님 → 값싼 이민 노동자
캘리포니아(121쪽 ¶4)	미국 최대 농업 주 · 미국 딸기 생산의 **80% 이상** · 값싼 노동은 주로 멕시코에서 / 농업 노동자 약 **70%**가 멕시코 출생 · 그중 **적어도 절반**이 미등록(불법 취업)
la fruta del diablo	'악마의 과일' — 캘리포니아에서 가장 박봉이고 가장 힘들어 가장 꺼리는 농사일 가운데 하나 / 포기 **4~5인치** · 두둑 **8~12인치** → 늘 허리를 굽힘 · 하루 **10~12시간** · 몇 주씩 → '극심한 통증과 평생 장애를 부를 수 있음'(인용)
노동자의 처우	대부분 박봉 · 가혹한 조건 / 미등록 노동자: '합법' 노동자 임금의 **절반가량** · 학대 · 경찰에 갈 수 없음을 고용주가 앎

항목	내용(바꿔치기 주의점)
농업 기계화(125쪽 각주 iii)	지난 두 세기 · 소 · 말 쟁기 · 괭이 · 낫 → 트랙터 · 콤바인 · 드론 / 각주 iii: 말이 끄는 기계 19세기 들머리 · 콤바인(수확기 + 탈곡기) **1880년대** · 내연 기관 트랙터 **20세기 초** · 드론 = 작물 · 가축 · 관개 감시
딸기 수확 로봇	판단(숨은 곳 · 익은 정도) · 섬세함(멍) 때문에 기계화를 버팀 → 상업화 직전(라즈베리 · 토마토 · 상추도) · 여러 회사가 개발 · 아직 사람만큼은 아님 · 농업 자동화의 '마지막 전선'
일자리 공포(122쪽 ¶2)	로봇이 대부분의 노동자를 대체한다는 뉴스 · AI는 손과 근육만이 아니라 뇌까지 대체 / Financial Times 'Can a robot do your job?'(**2017년**)
125쪽 각주 iv · v	iv: Richard Arkwright(영국 발명가) 수력 방적 공장('water frame') **1771년** · Oliver Evans(미국 기술자) 자동화 제분소 **1785년** / v: AI가 간단한 기사 · 스포츠 하이라이트 · GPT-3의 Guardian 기사(**2020년 9월 8일**)
계급적 위선(122쪽 ¶3~¶4)	자동화로 인한 실직 = 적어도 250년 동안 자본주의의 한결같은 특징 / FT류 필자들이 블루칼라를 '러다이트'(19세기 초 직물 기계를 부순 영국 직물 장인)라 비난 → 의료 · 법률 · 회계 · 금융 · 교육 · 언론이 위협받자 뒤늦게 두려워함
자동화의 일자리 창출(123쪽 ¶1~¶2)	직접: 로봇 엔지니어 · 로봇 · 부품 생산 노동자 / 값이 내려 수요 증가 → James Bessen: 19세기 미국 직조 노동 **98%** 감소 · 직조공 **4배** / 간접: 예약 사이트 · Airbnb · 소규모 전문 투어 / 생산성 · 1인당 소득 → 고등 교육 · 오락 · 패션 · 그래픽 디자인 · 미술관
정책으로 만드는 일자리(123쪽 ¶3)	적어도 **1930년대**부터 경기 하강기에 정부 지출 확대 / 코로나19: 영국 '휴직 제도(furlough scheme)' 임금의 최대 **80%** / 규제: 학생당 교사 · 환자당 의사 · 간호사 · 요양원 거주자당 돌봄 인력(「Chilli」)
'이번엔 다르다?'(124쪽 ¶1)	**1900년** 영국 중상류층 여성(하녀의 일) → 세탁기 · 진공청소기 · 전자레인지 · 냉장고 · 즉석식품 기계 / **1950년** 일본 기계공(컴퓨터가 제어하는 선반) → CNC / **50년** 뒤 사람들은 화이트칼라 일을 자동화할 수 없다던 생각을 이해하기 어려울지도
125쪽 각주 vi	Kurt Vonnegut(미국 SF 작가) · **1951년** 소설 Player Piano — CNC 기계 덕분에 육체노동이 필요 없는 번영의 세계 · 소수의 관리자 · 기술자 · 과학자 말고는 대부분 비참(할 일이 없고 사회에 쓸모없다고 느낌)
실직자 지원(124쪽 ¶3)	자유시장 경제학자의 가정: 재훈련하면 됨 · 실업은 시세 임금으로 일하기 싫어서 / 현실: 국가 지원 없이는 매우 어려움 · 실업 급여 · 소득 지원 · 저렴한 재훈련(정부 보조금) · 실질적 구직 지원(스웨덴 · 핀란드의 적극적 노동 시장 정책)
결론(124쪽 ¶4~125쪽 ¶1)	딸기가 '그' 베리가 됐듯 자동화도 '그' 일자리 파괴자로 여겨짐 · 순 파괴자가 아님 · 재정 · 노동 시장 정책 · 규제로 사회가 일자리를 만들 수 있음 · 기술 공포증과 젊은 세대의 절망을 넘자

PART 2

유닛별 정밀 해부

Edible Economics · 「Strawberry」 (원서 PDF 120~125쪽) · 6개 유닛

▲ 어법 함정 ● 어휘 반전 ★ 빈칸·요약 ◆ 밑줄 의미·지칭

16-1 베리가 아닌 '그' 베리 — 딸기를 먹는 여러 방법 120쪽 ¶1~¶3

원문 위치 원서 120쪽 ¶1~¶3 — 원서를 펴고 문장마다 [1] [2] … 번호를 연필로 매긴 뒤, 아래 자리에 기호를 직접 표시한다.

기호	위치	원서에서 찾을 말	왜 이 자리인가
◆	120쪽 [제목]	Strawberry 'milk' (recipe by Hee-Jeong, my wife)	저자 아내의 요리 — 딸기를 우유에 으깨고 연유를 더함
★	120쪽 ¶1 첫 문장	Strawberry is not a berry – according to the scientific definition	장 전체 비유의 출발 · 125쪽 각주 i
▲	120쪽 ¶1 둘째 문장	Neither are blackberries or raspberries	Neither + 동사 + 주어 도치
★	120쪽 ¶1 셋째 문장	Botanically, grape, blackcurrant, banana, cucumber, tomato, aubergine, watermelon and chilli are berries	베리인 것 — 일치(고추도 베리 · 「Chilli」)
★	120쪽 ¶1 다섯째 문장	There are berries that are scientifically berries too – cranberry, blueberry and gooseberry	이름도 실제도 베리 — 일치
▲	120쪽 ¶1 여섯째 문장	toiled away and (presumably) debated with each other, only to come up with a scientific category called 'berry'	only to V(결과) · presumably = 저자의 짐작
◆	125쪽 각주 i	a fleshy fruit without a stone (pit), produced from a single flower containing one ovary … 'aggregate fruit'	베리의 정의 · 딸기는 꽃받기에서 — 무관 문항의 바탕
◆	120쪽 ¶2 첫 문장	Whether or not it is botanically a berry, strawberry is 'the' berry for most people around the globe	whether or not · 124쪽 ¶4 결론의 비유와 짝
▲	120쪽 ¶2 둘째 문장	the best strawberries are sweet and flavourful enough to be eaten on their own	형용사 + enough to V · 수동 부정사

기호	위치	원서에서 찾을 말	왜 이 자리인가
★	120쪽 ¶2 넷째 문장	People sweeten them with sugar or (better yet, in my view) condensed milk	저자의 취향 — 일치
▲	120쪽 ¶2 다섯째 문장	The more adventurous eat strawberries with balsamic vinegar or black pepper – or both	the + 형용사 = 사람들 · 어휘(adventurous)
★	120쪽 ¶2 여섯째 문장	When invited to attend a summer garden party in Britain, expect to be served strawberries with cream poured over them	분사구문 · with + O + p.p. · 저자는 이 조합을 싫어함
★	120쪽 ¶3 둘째 문장	Strawberry, together with vanilla and chocolate, forms the Holy Trinity of ice cream flavours ... do not have any real strawberry in them	together with + 단수 동사 · 진짜 딸기 없음
◆	120쪽 ¶3 셋째 문장	Eton mess (... allegedly invented in Eton College ...) and strawberry trifle	allegedly = 전언 — 사실로 단정 금지

내용

이 장은 저자의 아내 Hee-Jeong이 만드는 딸기 '우유' — 딸기를 우유에 으깨고 연유를 더한 것 — 로 시작한다. 과학적 정의에 따르면 딸기는 베리가 아니다(125쪽 각주 i: 식물학에서 베리는 씨방 하나를 가진 꽃 한 송이에서 생긴, 씨(핵)가 없는 과육 많은 열매다. 딸기는 씨방이 아니라 씨방을 받치는 꽃받기에서 자라며 '집합과'라는 하위 범주에 속한다). 블랙베리와 라즈베리도 베리가 아니다. 식물학적으로는 포도, 블랙커런트, 바나나, 오이, 토마토, 가지, 수박, 고추가 베리다. 걱정할 것은 없다. 크랜베리, 블루베리, 구스베리처럼 과학적으로도 베리인 베리도 있다. 그래도 식물학의 뛰어난 학자들이 애써 연구하고 (아마) 서로 논쟁까지 한 끝에, 베리라 불리지만 베리가 아닌 것과 베리라 불리지 않지만 베리인 것이 이토록 많은 '베리'라는 과학적 범주를 내놓았을 뿐이라니 의아해진다. 식물학적으로 베리이든 아니든, 딸기는 세계 대부분 사람에게 '그' 베리다. 제철에 나는 가장 좋은 딸기는 그것만 먹어도 될 만큼 달고 맛있지만, 다른 때에는 대개 조금 시큼하다. 사람들은 설탕이나 (저자가 보기에 더 좋은) 연유로 단맛을 더한다. 더 모험심 있는 사람들은 딸기를 발사믹 식초나 후추와, 또는 둘 다와 함께 먹는다. 영국의 여름 가든파티에 초대받으면 크림을 부은 딸기를 대접받을 각오를 하라(영국 친구 몇을 잃을 위험을 무릅쓰고 저자는 이 조합을 좋아하지 않는다고 고백한다). 우리는 딸기로 케이크, 치즈케이크, 타르트(저자는 프랑스의 tarte aux fraises를 특히 좋아한다) 같은 온갖 단것을 만든다. 딸기는 바닐라, 초콜릿과 함께 세계 어디서나 아이스크림 맛의 '삼위일체'를 이루지만, 대부분의 '딸기' 아이스크림에는 진짜 딸기가 전혀 들어 있지 않다. 영국 사람들은 특히 딸기 디저트에 창의적이다. Eton mess(딸기, 부순 머랭, 크림을 섞은 것으로, 영국 정치 엘리트를 길러 낸 것으로 유명한 사립학교 Eton College에서 만들어졌다고 전해진다)와 strawberry trifle(딸기, 커스터드, 셰리에 적신 스펀지 핑거 비스킷, 그리고 논란거리인 딸기 맛 젤리를 섞고 크림을 한 층 얹은 것)이 그 예다.

어법

- **Strawberry is not a berry – according to the scientific definition. Neither are blackberries or raspberries.** : 부정문 뒤 Neither + 동사 + 주어(도치) = ~도 아니다. 동사 are는 뒤의 복수 주어(blackberries or raspberries)에 맞춘다.
- **you wonder why some of the best minds in botany toiled away and (presumably) debated with each other, only to come up with a scientific category called 'berry'** : why ~ = 간접의문문(wonder의 목적어). only to V = 결과(애썼지만 결국 ~했을 뿐). called 'berry' = category를 꾸미는 과거분사.

- **when there are so many things that are called berries that are not, and so many things that aren't that are** : 앞의 that = 주격 관계대명사(things를 꾸밈), 뒤의 that are not = 그런데 (베리가) 아닌. that aren't (called berries) that are (berries)처럼 반복되는 말이 생략되었다.
- **Whether or not it is botanically a berry, strawberry is 'the' berry for most people around the globe** : whether or not ~ = ~이든 아니든(양보의 부사절). 따옴표를 친 'the' = 대표적인, 바로 그.
- **In their natural season, the best strawberries are sweet and flavourful enough to be eaten on their own** : 형용사 + enough to V(enough는 형용사 뒤). to be eaten = 수동 부정사(딸기가 먹히는 것). on their own = 그것만으로.
- **The more adventurous eat strawberries with balsamic vinegar or black pepper – or both** : the + 형용사(비교급) = ~한 사람들(복수 취급 → 동사 eat).
- **When invited to attend a summer garden party in Britain, expect to be served strawberries with cream poured over them** : When (you are) invited = 접속사를 남긴 분사구문. expect to be served + 사물 = serve A B의 수동(대접받다). with + O + p.p.(cream poured) = 크림이 부어진 채로.
- **Strawberry, together with vanilla and chocolate, forms the Holy Trinity of ice cream flavours** : together with ~는 주어에 더하지 않으므로 주어 Strawberry(단수) → forms(form은 오답).

단어·표현	뜻	유의어	반의어(반전 후보)
botanically	식물학적으로	–	–
toil away	애써 일하다	labour	idle
presumably	아마, 짐작건대	probably	–
category	범주	class	–
flavourful	맛이 풍부한	tasty	bland
tart	시큼한	sour	sweet
sweeten	달게 하다	sugar	–
adventurous	모험심 있는	daring	cautious
confess	고백하다	admit	deny
inventive	창의적인	creative	unimaginative
allegedly	전해지는 바로는	supposedly	–
controversially	논란이 되게도	–	–
fleshy	과육이 많은	pulpy	–

내용 일치 딸기 '우유' = 저자의 아내 Hee-Jeong의 요리(딸기를 우유에 으깨고 연유를 더함) / 과학적 정의로 딸기 · 블랙베리 · 라즈베리는 베리가 아님 · 포도 · 블랙커런트 · 바나나 · 오이 · 토마토 · 가지 · 수박 · 고추는 베리 · 크랜베리 · 블루베리 · 구스베리는 과학적으로도 베리 / 각주 i: 베리 = 씨방 하나를 가진 꽃 한 송이에서 생긴 씨 없는 과육 많은 열매 · 딸기는 꽃받기에서 자란 '집합과' / 대부분 사람에게 '그' 베리 · 제철의 가장 좋은 딸기는 그것만으로 달고 맛있음 · 제철 밖에는 조금 시큼 · 설탕 또는 연유(저자는 연유가 더 낫다고 봄) · 발사믹 식초 · 후추 · 영국 여름 가든파티의 크림 부은 딸기(저자는 좋아하지 않음) / 케이크 · 치즈케이크 · 타르트 · 아이스크림 맛의 삼위일체(바닐라 · 초콜릿 · 딸기) · 대부분의 '딸기' 아이스크림엔 진짜 딸기 없음 / Eton mess(Eton College에서 만들어졌다고 전해짐) · strawberry trifle. **밑줄 의미** 'the' berry = 식물학의 분류와 상관없이 사람들이 가장 먼저 떠올리는 대표 베리 – 124쪽 ¶4에서 자동화의 비유로 다시 쓰임 / only to come up with = 애쓴 끝에 겨우 혼란스러운 범주를 내놓았을 뿐(저자의 가벼운 풍자) / (presumably) = 논쟁했으리라는 저자의 짐작 / at the risk of losing a few English friends = 영국 사람들이 즐기는 조합을 싫다고 말하는 부담 / allegedly =

전해지는 말일 뿐 확인된 사실이 아님 / 지칭: 120쪽 ¶2 it(Whether or not it is) = strawberry · their(natural season) · they · them(sweeten them · poured over them) = strawberries / 120쪽 ¶3 them(in them) = 대부분의 '딸기' 아이스크림.

> **한 줄 요약** 딸기는 식물학적으로 베리가 아니지만 세계 대부분 사람에게 '그' 베리이며, 연유 · 크림과 곁들이거나 케이크 · 타르트 · 아이스크림 · 영국식 디저트로 즐긴다.

16-2 제철 밖의 딸기 – '그' 잼이 된 딸기잼 120쪽 ¶4 ~ 121쪽 ¶1

원문 위치 원서 120쪽 ¶4 ~ 121쪽 ¶1 – 원서를 펴고 문장마다 [1] [2] … 번호를 연필로 매긴 뒤, 아래 자리에 기호를 직접 표시한다.

기호	위치	원서에서 찾을 말	왜 이 자리인가
★	120쪽 ¶4 첫 문장	the seasonality of strawberry is overcome by imports from different climes or cultivation in greenhouses	현재 수동 · 삽입 문항의 these practices가 가리키는 말
◆	120쪽 ¶4 둘째 문장 (121쪽 첫 줄까지)	until a few decades ago these practices were expensive, so for most people the only way to taste strawberry outside the season was to make it into jam	지시어 these practices · the only way ~ was to V
★	121쪽 첫 줄 둘째 문장	There are jams made with other fruits (such as raspberry, peach or apricot), but for most people strawberry jam is 'the' jam	'그' 잼 – '그' 베리와 짝
▲	121쪽 ¶1 첫 문장	On top of buttered toast is where strawberry jam is most frequently found	전치사구 주어 + where 명사절 보어
★	121쪽 ¶1 둘째 문장	British jam-and-cheese sandwich, folded French crêpe, or peanut butter and strawberry jam sandwich – my family's variation on the American classic PB&J	잼의 쓰임 – 일치 · 「Banana」
★	121쪽 ¶1 셋째 문장	The best use of strawberry jam for me is to put it on top of British scones, together with clotted cream	저자의 취향 · to부정사 보어
◆	121쪽 ¶1 셋째 문장 괄호	I am declaring strict neutrality regarding the Devon–Cornwall war on the order of jam and cream	125쪽 각주 ii: Devon = 크림 먼저 · Cornwall = 잼 먼저

기호	위치	원서에서 찾을 말	왜 이 자리인가
★	121쪽 ¶1 넷째 문장	Russians put strawberry jam (and other fruit jams) in their tea, to sweeten it and to counter the tannic taste of tea	목적의 to부정사 병렬 · 어휘(counter)
▲	121쪽 ¶1 넷째 문장	I've grown too fond of British tea with milk to have my tea with fruit jam, other than as an occasional diversion	grow + 형용사 · too ~ to V · other than

내용

요즘은 다른 기후 지역에서 들여오는 수입이나 온실 재배로 딸기의 계절성을 극복한다. 그러나 몇십 년 전까지만 해도 이런 방법은 비쌌으므로, 대부분의 사람에게 제철이 아닐 때 딸기를 맛보는 유일한 방법은 딸기를 잼으로 만드는 것이었다. (라즈베리, 복숭아, 살구처럼) 다른 과일로 만든 잼도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에게 딸기잼은 '그' 잼이다. 딸기잼을 가장 흔히 볼 수 있는 곳은 버터 바른 토스트 위다. 그러나 딸기잼은 빵 같은 것들 사이에 들어갈 수도 있다. 영국의 잼 치즈 샌드위치, 접은 프랑스 크레프, 그리고 미국의 고전인 PB&J, 곧 땅콩버터와 (포도) 젤리 샌드위치를 저자 가족이 바꾼 땅콩버터 딸기잼 샌드위치가 그렇다(젤리에 관해서는 「Banana」 참조). 저자에게 딸기잼의 가장 좋은 쓰임은 클로티드 크림과 함께 영국 스콘 위에 올리는 것이다. 덧붙여 저자는 잼과 크림의 순서를 둘러싼 Devon과 Cornwall의 '전쟁'에서 엄격한 중립을 선언한다. 저자에게는 두 방식 모두 맛이 괜찮다(125쪽 각주 ii: Devon 방식은 크림이 먼저, Cornwall 방식은 잼이 먼저다). 러시아 사람들은 홍차에 딸기잼(과 다른 과일 잼)을 넣어 단맛을 더하고 차의 타닌 맛을 누그러뜨린다. 꽤 영리한 작은 아이디어지만, 저자는 우유를 넣은 영국식 홍차를 너무 좋아하게 되어서, 가끔 기분 전환 삼아 마실 때 말고는 과일 잼을 넣은 차를 마시지 않는다.

어법

- **These days, the seasonality of strawberry is overcome by imports from different climes or cultivation in greenhouses** : 현재 수동(is overcome). by 뒤에 명사 둘(imports · cultivation)이 or로 병렬.
- **But until a few decades ago these practices were expensive, so for most people the only way to taste strawberry outside the season was to make it into jam** : these practices = 앞 문장의 수입 · 온실 재배. 주어 the only way(단수) → was, 보어 to make = 명사적 to부정사. make A into B = A를 B로 만들다.
- **There are jams made with other fruits (such as raspberry, peach or apricot)** : there are + 복수명사. made with ~ = jams를 꾸미는 과거분사.
- **On top of buttered toast is where strawberry jam is most frequently found** : 장소 전치사구(On top of buttered toast)가 주어 자리에 오고, 보어는 where 명사절(= the place where). 수동 is found.
- **But it could go between bready things, as in British jam-and-cheese sandwich, folded French crêpe, or peanut butter and strawberry jam sandwich** : could = 가능성(~할 수도 있다). as in ~ = ~에서처럼. it = strawberry jam.
- **The best use of strawberry jam for me is to put it on top of British scones, together with clotted cream** : 주어 The best use → is → 보어 to put(명사적 용법). together with = ~와 함께.
- **Russians put strawberry jam (and other fruit jams) in their tea, to sweeten it and to counter the tannic taste of tea** : 목적의 to부정사 둘(to sweeten · to counter) 병렬. it = their tea.
- **personally I've grown too fond of British tea with milk to have my tea with fruit jam, other than as an occasional diversion** : grow + 형용사 = ~하게 되다(현재완료). too ~ to V = 너무 ~해서 …할 수 없다. other than = ~을 빼고는.

단어·표현	뜻	유의어	반의어(반전 후보)
seasonality	계절성	—	—
overcome	극복하다	surmount	succumb
clime	지역, 풍토	region	—
cultivation	재배	farming	—
frequently	자주, 흔히	often	rarely
variation	변형	version	—
classic	고전, 대표 작품	standard	—
neutrality	중립	impartiality	partiality
counter	상쇄하다, 누그러뜨리다	offset	reinforce
tannic	타닌 맛이 나는, 떫은	astringent	—
fond (of)	좋아하는	keen (on)	averse (to)
occasional	가끔의	infrequent	regular
diversion	기분 전환	distraction	—

내용 일치 요즘 계절성 극복 = 다른 기후 지역의 수입 · 온실 재배 / 몇십 년 전까지는 이 방법들이 비쌌음 → 제철 밖에 딸기를 맛보는 유일한 길 = 잼 / 라즈베리 · 복숭아 · 살구 잼도 있지만 대부분 사람에게 딸기잼이 '그' 잼 / 가장 흔한 자리 = 버터 바른 토스트 위 · 영국 잼 치즈 샌드위치 · 접은 프랑스 크레프 · 땅콩버터 딸기잼 샌드위치(저자 가족이 미국 PB&J를 바꾼 것, 「Banana」) / 저자가 꼽는 최고의 쓰임 = 클로티드 크림과 함께 영국 스콘 위 · Devon · Cornwall 논쟁에 엄격한 중립(각주 ii: Devon = 크림 먼저 · Cornwall = 잼 먼저) / 러시아: 홍차에 잼 — 단맛 · 타닌 맛 상쇄 · 저자는 우유 넣은 영국 홍차를 더 좋아해 가끔만. **밑줄 의미** these practices = 앞 문장의 수입 · 온실 재배(삽입 문항의 단서) / 'the' jam = 120쪽 ¶2의 '그' 베리와 짝을 이루는 표현 — 잼 하면 딸기잼 / the Devon–Cornwall war = 크림과 잼의 순서를 둘러싼 지역 간 다툼을 '전쟁'에 빗댄 과장 / quite a clever little idea = 단맛을 더하면서 떫은맛도 잡는 방법 / other than as an occasional diversion = 가끔 기분 전환으로는 마신다 / 지칭: 121쪽 첫 줄 it(make it into jam) = strawberry / 121쪽 ¶1 it(could go · put it) = strawberry jam · it(sweeten it) = their tea · their = Russians'.

> **한 줄 요약** 수입과 온실 재배가 비쌌던 몇십 년 전까지 제철 밖에 딸기를 맛보는 유일한 길은 잼이었고, 딸기잼은 토스트 · 샌드위치 · 스콘 · 홍차에까지 쓰이는 '그' 잼이 되었다.

16-3 '악마의 과일' – 손이 많이 드는 딸기 수확과 이민 노동 121쪽 ¶2~¶5

원문 위치 원서 121쪽 ¶2~¶5 — 원서를 펴고 문장마다 [1] [2] … 번호를 연필로 매긴 뒤, 아래 자리에 기호를 직접 표시한다.

기호	위치	원서에서 찾을 말	왜 이 자리인가
★	121쪽 ¶2 첫 문장	Strawberry is a very labour-intensive crop, especially in terms of harvesting	주제문 · 어휘(labour-intensive)
★	121쪽 ¶2 둘째 문장	Unlike fruits such as apples or grapes, strawberries are often hidden among leaves, sometimes deeply, so they require time to locate	까닭 1 · 지칭 문항의 바탕
★	121쪽 ¶2 셋째 문장	They are soft and thus can get easily bruised in the picking process … which adds to the time required in harvesting	까닭 2 · get + p.p. · 계속적 which
▲	121쪽 ¶3 첫 문장	this high labour intensity is a major problem for strawberry producers, as it can make the fruit very expensive	이유의 as · make + O + 형용사
★	121쪽 ¶3 둘째 문장	Smaller farms that are easily accessible from main roads may partly meet this challenge by running PYO (pick your own) schemes	PYO — 일치 · 어휘(viable)
◆	121쪽 ¶3 셋째 문장	They try to solve the problem of (potentially) high labour cost by hiring cheap immigrant workers	They = 대부분의 농장 · by + 동명사
★	121쪽 ¶4 첫 문장	California, which is the biggest agricultural state in the US and which produces over 80% of US strawberry output	숫자 · 계속적 which 둘 병렬
★	121쪽 ¶4 둘째 문장	Some 70% of agricultural workers in California were born in Mexico, at least half of whom are 'undocumented'	숫자 · 수량 표현 + of whom
◆	121쪽 ¶5 첫 문장	These migrant Mexican workers call strawberry la fruta del diablo, the fruit of the devil	밑줄 의미 1순위 · call + O + C
★	121쪽 ¶5 첫 문장	one of the lowest-paid, most difficult and thus least desirable farm work in California	별명의 까닭

기호	위치	원서에서 찾을 말	왜 이 자리인가
★	121쪽 ¶5 둘째 문장	The plants are low (4–5 inches tall and growing from beds that are 8–12 inches high)	숫자 — 일치
▲	121쪽 ¶5 둘째 문장	doing this for ten to twelve hours each day, weeks on end, 'can cause excruciating pain and lifelong disabilities'	동명사구 주어 · 인용
★	121쪽 ¶5 넷째 문장	they are paid only around half of what 'legal' workers are paid, and many are exposed to abusive treatment	절반가량 — 일치 · half of what
▲	121쪽 ¶5 다섯째 문장	Employers know that they cannot run to the police	they = 미등록 노동자

내용

딸기는 특히 수확에서 노동이 아주 많이 드는 작물이다. 사과나 포도 같은 과일과 달리 딸기는 흔히 잎 사이에, 때로는 깊숙이 숨어 있어 찾는 데 시간이 걸린다. 또 무르기 때문에 따는 과정에서 쉽게 멍들어 따는 사람이 조심해야 하고, 이것이 수확에 드는 시간을 더 늘린다. 임금이 높은 부자 나라에서 이 높은 노동 집약도는 딸기 생산자에게 큰 문제다. 딸기 값을 아주 비싸게 만들 수 있기 때문이다. 큰길에서 쉽게 갈 수 있는 작은 농장들은 손님이 직접 따는 PYO(pick your own) 방식으로 이 문제에 어느 정도 대처할 수 있지만, 대부분 농장에는 실행 가능한 해법이 아니다. 농장들은 값싼 이민 노동자를 고용해 (잠재적으로) 높은 노동 비용 문제를 풀려 한다. 미국 최대의 농업 주이며 미국 딸기 생산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캘리포니아에서는 이런 값싼 노동을 주로 멕시코가 공급한다. 캘리포니아 농업 노동자의 약 70%가 멕시코에서 태어났고, 그중 적어도 절반은 '서류가 없는', 곧 미국에서 불법으로 일하는 사람들이다. 이 멕시코 출신 이주 노동자들은 딸기를 la fruta del diablo, 곧 '악마의 과일'이라 부른다. 딸기 수확이 캘리포니아에서 가장 박봉이고 가장 힘들어서 가장 꺼리는 농사일 가운데 하나이기 때문이다. 딸기 포기는 낮아서(높이 4~5인치로, 8~12인치 높이의 두둑에서 자란다) 열매를 따려면 계속 허리를 굽혀야 하고, 이 일을 하루 10~12시간씩 몇 주 동안 계속하면 '극심한 통증과 평생 가는 장애를 부를 수 있다'. 이 노동자들은 대부분 박봉에 가혹한 조건에서 일한다. 서류가 없는 노동자는 '합법' 노동자가 받는 임금의 절반가량만 받고, 많은 이가 학대에 노출된다. 고용주들은 그들이 경찰을 찾아갈 수 없다는 것을 안다.

어법

- **Unlike fruits such as apples or grapes, strawberries are often hidden among leaves, sometimes deeply, so they require time to locate** : unlike + 명사 = ~와 달리. are hidden = 수동. require time to locate = 찾는 데 시간이 든다(주어 they가 locate의 의미상 목적어).
- **They are soft and thus can get easily bruised in the picking process, so the pickers need to be careful, which adds to the time required in harvesting** : get + p.p.(bruised) = 동작의 수동. which = 앞 절(조심해야 한다는 것)을 받는 계속적 용법 → 단수 adds. add to = ~을 늘리다. required = time을 꾸미는 과거분사.
- **Smaller farms that are easily accessible from main roads may partly meet this challenge by running PYO (pick your own) schemes, where the customers provide their own labour for picking** : 주어 Smaller farms ← that 관계절, 동사 may meet. by + 동명사. where = 관계부사(선행사 schemes).
- **In California, which is the biggest agricultural state in the US and which produces over 80% of US strawberry output, such cheap labour is mainly supplied by Mexico** : 계속적 which 두 개가 and로 병렬(선행사 California). 주절은 수동(is supplied by).

- **Some 70% of agricultural workers in California were born in Mexico, at least half of whom are 'undocumented', meaning that they are working in the US illegally** : some + 숫자 = 약. 수량 표현 + of whom(접속사가 없으므로 of them은 오답). meaning that ~ = 앞 내용을 풀이하는 분사구문.
- **These migrant Mexican workers call strawberry la fruta del diablo, the fruit of the devil, as strawberry harvesting is one of the lowest-paid, most difficult and thus least desirable farm work** : call + O + C(5형식). the fruit of the devil = la fruta del diablo의 풀이(동격). as = 이유. one of the + 최상급 + 복수 명사가 원칙인데, 원서는 셀 수 없는 farm work를 그대로 썼다(원서 표기 — 영작에서는 farm jobs처럼 복수로).
- **doing this for ten to twelve hours each day, weeks on end, 'can cause excruciating pain and lifelong disabilities'** : 동명사구(doing this ...)가 주어 → can cause. weeks on end = 몇 주씩 계속.
- **In the case of undocumented workers, they are paid only around half of what 'legal' workers are paid** : half of what ~ = ~가 받는 것의 절반(관계대명사 what). are paid = 수동.

단어·표현	뜻	유의어	반의어(반전 후보)
labour-intensive	노동 집약적인	—	capital-intensive
locate	찾아내다	find	—
bruise	멍들게 하다	damage	—
accessible	접근하기 쉬운	reachable	inaccessible
viable	실행 가능한	feasible	unviable
immigrant	이민자(의)	migrant	native
undocumented	체류 서류가 없는	unregistered	documented
desirable	하고 싶은, 바람직한	attractive	undesirable
on end	계속해서	continuously	—
excruciating	극심한	agonizing	mild
disability	장애	impairment	—
harsh	가혹한	severe	gentle
abusive	학대하는	cruel	kind
exposed (to)	노출된, 당하는	subjected (to)	protected (from)

내용 일치 딸기 = 특히 수확에서 노동 집약적 · 사과 · 포도와 달리 잎 사이에 숨어 찾는 데 시간 · 물러서 멍들기 쉬움 → 조심 → 시간 증가 / 임금이 높은 부자 나라에서 큰 문제(딸기가 비싸질 수 있음) · 큰길에서 가까운 작은 농장의 PYO — 대부분 농장엔 해법 아님 · 값싼 이민 노동자 고용 / 캘리포니아 = 미국 최대 농업 주 · 미국 딸기의 80% 이상 · 노동은 주로 멕시코에서 · 농업 노동자 약 70%가 멕시코 출생 · 그중 적어도 절반 미등록 / la fruta del diablo = 가장 박봉 · 가장 힘듦 · 가장 꺼리는 일 가운데 하나 · 포기 4~5인치 · 두둑 8~12인치 · 하루 10~12시간 · 몇 주씩 → 극심한 통증 · 평생 장애를 부를 수 있음(인용) / 대부분 박봉 · 가혹한 조건 · 미등록 노동자는 '합법' 노동자의 절반가량 · 학대 · 경찰에 못 감. **밑줄 의미** labour-intensive = 기계로 대신하기 어려워 사람 손이 많이 든다 — 122쪽의 기계화 논의로 이어짐 / not a viable solution for most farms = 손님이 직접 따는 방식은 큰길 가까운 작은 농장에서나 통함 / (potentially) = 이민 노동이 없으면 높아질 수 있는 비용 / the fruit of the devil = 박봉 · 고된 노동 · 몸을 망치는 일이라 노동자들이 붙인 별명 / they cannot run to the police = 불법 체류라 학대를 신고할 수 없는 약점 / 지칭: 121쪽 ¶2 they(require time) · They(are soft) = strawberries / 121쪽 ¶3 it(can make) = this high labour intensity · They(try to solve) = 대부분의 농장 / 121쪽 ¶4 whom = 캘리포니아 농업 노동자 · they(are working) = 미등록 노동자 / 121쪽 ¶5 you(have to bend) = 따는 사람(일반 주어) · they(are paid · cannot run) = 미등록 노동자.

한 줄 요약 숨어 있고 무른 딸기는 수확에 손이 많이 들어 부자 나라 농장은 값싼 이민 노동에 기대고, 캘리포니아의 멕시코 출신 노동자들은 박봉 · 고된 노동 · 학대 때문에 딸기를 '악마의 과일'이라 부른다.

16-4 딸기 따는 로봇과 일자리 공포 – 평론가 계층의 위선 122쪽 첫 줄 ~ ¶4

원문 위치 원서 122쪽 첫 줄 ~ ¶4 – 원서를 펴고 문장마다 [1] [2] … 번호를 연필로 매긴 뒤, 아래 자리에 기호를 직접 표시한다.

기호	위치	원서에서 찾을 말	왜 이 자리인가
★	122쪽 첫 줄 첫 문장	agriculture has been mechanized to a very high degree, at least in rich countries with expensive workers – from oxen- or horse-ploughs, hoes and scythes to tractors, combine harvesters and now even drones	현재완료 수동 · from A to B · 125쪽 각주 iii
◆	125쪽 각주 iii	The combine harvester … was invented in the 1880s. Modern tractors using internal combustion engines emerged in the early twentieth century	연도 – 일치
★	122쪽 첫 줄 둘째 문장	harvesting of strawberries has so far resisted mechanization, given the judgement … and the delicacy … involved in the work	기계화가 안 된 두 까닭 · given + 명사
★	122쪽 ¶1 둘째 문장	we are on the cusp of commercializing robots that can pick strawberries	on the cusp of -ing
★	122쪽 ¶1 셋째 문장	several companies developing robot harvesters that can locate, assess the ripeness of strawberries and then pick them without bruising	로봇의 세 동작
▲	122쪽 ¶1 넷째 문장	These robots are as yet not quite as good as humans, but since they are constantly improving, the time will soon come when the final frontier of agricultural automation – strawberry harvesting – is conquered	관계부사 when의 분리 · 어휘(improving)
★	122쪽 ¶2 첫 문장	It isn't just the strawberry pickers whose jobs are threatened by automation	강조 구문 + whose

기호	위치	원서에서 찾을 말	왜 이 자리인가
▲	122쪽 ¶2 둘째 문장	you cannot read, listen to or watch news media without being told how robots are soon going to replace most human workers	cannot ~ without -ing · 수동 동명사
★	122쪽 ¶2 셋째 문장	AI (artificial intelligence) technologies, which enable machines to replace the human brain, rather than just human hands and muscles	enable + O + to V · 수 일치
◆	122쪽 ¶2 넷째 문장	Symbolic of this global anxiety about automation is an interactive programme called 'Can a robot do your job?', launched by the Financial Times in 2017	보어 도치 · 연도
★	122쪽 ¶3 첫 문장	Job loss due to automation has been a constant feature of capitalism – at least for the last two and a half centuries	250년 · 125쪽 각주 iv(1771 · 1785)
▲	122쪽 ¶3 둘째 문장	have constantly chided blue-collar workers for resisting economic progress when they tried to delay the introduction of labour-saving technologies for fear of job retrenchment	chide A for -ing · 지칭 they
◆	122쪽 ¶4 첫 문장	I smell class hypocrisy here	밑줄 의미 1순위
★	122쪽 ¶4 둘째 문장	found it easy to condemn technology-resistant blue-collar workers as 'Luddites' – the early nineteenth-century British textile artisans who thought they could save their jobs by smashing the textile machines	가목적어 it · condemn A as B · Luddites의 뜻
★	122쪽 ¶4 셋째 문장	now that automation is affecting white-collar professions … – medicine, law, accountancy, finance, teaching and even journalism –	now that · 125쪽 각주 v

내용

지난 두 세기 동안 농업은, 적어도 노동자가 비싼 부자 나라에서는, 소나 말이 끄는 쟁기 · 괭이 · 낫에서 트랙터 · 콤바인, 이제는 드론에 이르기까지 매우 높은 수준으로 기계화되었다(125쪽 각주 iii: 처음에 말의 힘으로 움직이던 농업 기계는 19세기 들머리에 나타나기 시작했다. 수확기와 탈곡기를 합친 콤바인은 1880년대에 발명되었고, 내연 기관을 쓰는 현대식 트랙터는 20세기 초에 등장했으며, 드론은 요즘 작물의 상태 · 가축 · 관개 시설을 살피는 데 쓰인다). 그러나 딸기 수확은 그 일에 드는 판단(열매가 어디 숨어 있고 딸 만큼 익었는지)과 섬세함(열매가 쉽게 멍드므로) 때문에 지금까지 기계화를 버텨 왔다. 그런데 상황이 바뀌고 있다. 마침내 딸기(와 라즈베리 · 토마토 · 상추처럼 따기 어려운 다른 과일과 채소)를 딸

수 있는 로봇의 상업화를 눈앞에 두고 있다. 지금 여러 회사가 딸기를 찾아내고 익은 정도를 판단한 뒤 멍들지 않게 딸 수 있는 수확 로봇을 개발하고 있다. 이 로봇들은 아직 사람만큼 잘하지는 못하지만 꾸준히 나아지고 있으므로, 농업 자동화의 마지막 전선인 딸기 수확이 정복될 날이 곧 올 것이다. 자동화로 일자리가 위협받는 사람은 딸기 따는 노동자만이 아니다. 요즘은 로봇이 곧 대부분의 인간 노동자를 대체하고 그 결과 대부분의 사람이 일자리를 잃을 것이라는 이야기를 듣지 않고는 뉴스를 읽지도 듣지도 보지도 못한다. 일자리 없는 미래에 대한 공포는 기계가 사람의 손과 근육만이 아니라 뇌까지 대체하게 하는 AI(인공 지능) 기술의 발달로 특히 커졌다. 이 세계적인 자동화 불안을 상징하는 것이 Financial Times가 2017년에 내놓은 'Can a robot do your job?'이라는 쌍방향 프로그램이다. 자동화로 인한 실직은 적어도 지난 250년 동안 자본주의의 한결같은 특징이었다(「Chocolate」 참조. 125쪽 각주 iv: 영국 발명가 Richard Arkwright가 1771년 수력으로 움직이는 최초의 완전 자동화 방적 공장('water frame')을 세우고, 미국 기술자 Oliver Evans가 1785년 제분소의 형태로 최초의 완전 자동화 산업 공정을 발명한 이래). 실제로 Financial Times 같은 매체에 글을 쓰는 언론인 · 경제학자 · 경영 평론가들은, 블루칼라 노동자들이 일자리 감축이 두려워 노동 절약 기술의 도입을 늦추려 할 때 경제 발전에 저항한다고 꾸준히 꾸짖어 왔다. 그런데 왜 그 기자와 평론가들이 갑자기 자동화가 일자리에 미칠 영향을 걱정하는가? 저자는 여기서 계급적 위선의 냄새를 맡는다. 평론가 계층은 자기 일자리가 자동화로부터 안전하다고 생각할 때에는, 기술에 저항하는 블루칼라 노동자를 '러다이트' – 자신을 대체하기 시작한 직물 기계를 부숴 일자리를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한 19세기 초 영국의 직물 장인들 – 라고 쉽게 비난했다. 그러나 이제 자동화가 그들과 그 친구들이 속한 화이트칼라 전문직 – 의료, 법률, 회계, 금융, 교육, 심지어 언론 – 에 영향을 미치자, 그들은 뒤늦게 기술로 인한 실업과, 더 나쁘게는 자기 기술이 영영 쓸모없어지는 것을 두려워하게 되었다(125쪽 각주 v: 이미 AI로 간단한 기사를 쓰고 스포츠 경기 하이라이트를 편집하는 언론사가 있다. 저자는 AI가 훨씬 더 정교한 것도 만들 수 있다며 2020년 9월 8일 영국 신문 Guardian에 실린 GPT-3의 글을 예로 든다).

어법

- **In the last couple of centuries, agriculture has been mechanized to a very high degree** : 현재완료 수동(has been mechanized). in the last ~ = 지난 ~ 동안.
- **However, harvesting of strawberries has so far resisted mechanization, given the judgement … and the delicacy … involved in the work** : given + 명사 = ~을 고려하면(~ 때문에). involved in the work = the judgement와 the delicacy를 꾸미는 과거분사.
- **Finally, we are on the cusp of commercializing robots that can pick strawberries** : on the cusp of + 동명사 = 막 ~하려는 참이다. that = 주격 관계대명사(선행사 robots).
- **since they are constantly improving, the time will soon come when the final frontier of agricultural automation – strawberry harvesting – is conquered** : since = 이유. when 관계절이 선행사 the time에서 떨어져 come 뒤에 왔다(주어가 길어지는 것을 피함). 앞날의 일이지만 관계절은 현재(is conquered)로 썼다.
- **It isn't just the strawberry pickers whose jobs are threatened by automation** : It is ~ that 강조 구문의 that 자리에 소유격 whose(일자리가 위협받는 사람은 딸기 따는 노동자만이 아니다). 수동 are threatened.
- **you cannot read, listen to or watch news media without being told how robots are soon going to replace most human workers and as a result how most people will be left jobless** : cannot A without B = A할 때마다 B한다. being told = 수동 동명사. how절(간접의문문) 둘 병렬. be left + 형용사(jobless).
- **Symbolic of this global anxiety about automation is an interactive programme called 'Can a robot do your job?', launched by the Financial Times in 2017** : 보어(Symbolic of ~)가 앞으로 나가 동사 is + 주어(an interactive programme)로 도치. called · launched = 과거분사.
- **The members of the commentariat class found it easy to condemn technology-resistant blue-collar workers as 'Luddites'** : find + 가목적어 it + 형용사 + 진목적어 to V. condemn A as B = A를 B라고 비난하다.

단어·표현	뜻	유의어	반의어(반전 후보)
mechanize	기계화하다	automate	—
delicacy	섬세함	gentleness	roughness
on the cusp of	~하기 직전에	on the verge of	—
commercialize	상업화하다	market	—
ripeness	익은 정도	maturity	—
frontier	전선, 경계	boundary	—
heighten	높이다, 키우다	intensify	reduce
anxiety	불안	worry	calm
pundit	전문가, 평론가	commentator	—
chide	꾸짖다	scold	praise
retrenchment	감축	cutback	expansion
hypocrisy	위선	insincerity	sincerity
belatedly	뒤늦게	late	promptly
redundancy	쓸모없어짐, 정리 해고	obsolescence	—

내용 일치 지난 두 세기 · 노동자가 비싼 부자 나라에서 농업 고도 기계화(쟁기 · 괭이 · 낫 → 트랙터 · 콤바인 · 드론) · 각주 iii: 콤바인 1880년대 · 내연 기관 트랙터 20세기 초 · 드론 = 작물 · 가축 · 관개 감시 / 딸기 수확은 판단 · 섬세함 때문에 지금까지 버팀 / 딸기 따는 로봇 상업화 직전(라즈베리 · 토마토 · 상추도) · 여러 회사 개발 · 아직 사람만큼은 아님 · 꾸준히 나아짐 → 마지막 전선이 곧 정복됨(저자의 전망) / AI는 뇌까지 대체 → 공포 증폭 · FT 프로그램 2017년 / 자동화 실직 = 적어도 250년 동안 자본주의의 특징(각주 iv: 1771 Arkwright · 1785 Evans) · 평론가들은 블루칼라의 저항을 꾸짖어 옴 / 계급적 위선 · 러다이트 = 19세기 초 직물 기계를 부순 영국 직물 장인 · 의료 · 법률 · 회계 · 금융 · 교육 · 언론이 위협받자 뒤늦게 두려워함(각주 v: AI 기사 · GPT-3, Guardian 2020년 9월 8일). **밑줄 의미** the final frontier of agricultural automation = 기계화되지 않고 남은 마지막 농사일 / rather than just human hands and muscles = AI는 육체노동뿐 아니라 정신노동도 대체할 수 있다 / Symbolic of this global anxiety = 일자리 불안이 세계적 화제가 되었음 / class hypocrisy = 남의 일자리가 위협받을 땐 저항을 꾸짖다가 자기 일자리가 위협받자 겁내는 계층의 이중 잣대 / 'Luddites' = 기술 진보를 거부하는 사람이라는 비난의 꼬리표 / belatedly = 블루칼라가 오래전에 느낀 두려움을 이제야 / 지칭: 122쪽 첫 줄 they(are ripe) = the fruit / 122쪽 ¶1 them(pick them) = strawberries · they(are constantly improving) = these robots / 122쪽 ¶2 which(enable) = AI technologies / 122쪽 ¶3 they(tried to delay) = blue-collar workers / 122쪽 ¶4 they(thought they could save · replace them) = 직물 장인들 · they(thought their own jobs · are belatedly discovering) = 평론가 계층.

> **한 줄 요약** 기계화를 버텨 온 딸기 수확마저 로봇이 넘보며 일자리 공포가 커졌지만, 저자는 블루칼라의 저항을 꾸짖던 평론가들이 자기 일자리가 위협받자 뒤늦게 겁을 내는 데서 계급적 위선을 본다.

16-5 자동화는 일자리를 만들기도 한다 — 직접 · 간접 · 정책 122쪽 ¶5 ~ 124쪽 첫 줄

원문 위치 원서 122쪽 ¶5 ~ 124쪽 첫 줄 — 원서를 펴고 문장마다 [1] [2] … 번호를 연필로 매긴 뒤, 아래 자리에 기호를 직접 표시한다.

기호	위치	원서에서 찾을 말	왜 이 자리인가
★	122쪽 ¶5 첫 문장	we shouldn't be swept up by the new-found panic about automation among the commentariat class	be swept up by · 반론의 시작
★	122쪽 ¶5 둘째 문장 (123쪽 첫 줄까지)	Automation has been with us for the last 250 years, and we've never seen the mass destruction of jobs on the scale that it is predicted for our future	숫자 · 현재완료 경험
◆	123쪽 첫 줄 둘째 문장	This is because automation does not only destroy jobs, it also creates them	요지 1순위 · not only A, (but) also B
★	123쪽 ¶1 둘째 문장	robots may destroy strawberry-picking jobs, but automation will create demands for robot engineers, workers producing robots and workers producing robot parts	직접 창출 — 일치
▲	123쪽 ¶1 셋째 문장	it may also increase the overall labour demand (and thus create more jobs) by making the product cheaper and thus increase the demand for it	by + 동명사 · 원서 표기 increase
★	123쪽 ¶1 넷째 문장	According to a study by James Bessen … automation eliminated 98% of the weaving labour required to produce a yard of cloth, but the number of weavers actually grew by four times	숫자 — 일치 함정(98% · 4배)
★	123쪽 ¶2 둘째 문장	The advent of the computer and the internet may have destroyed many travel agency jobs … but it has also created other jobs in the travel industry	may have p.p. · 빈칸 1순위
★	123쪽 ¶2 둘째 문장	those who are running the booking sites, those who are renting out accommodation through the likes of Airbnb, or the guides for small, specialized tours	새 일자리 셋 — 일치

기호	위치	원서에서 찾을 말	왜 이 자리인가
▲	123쪽 ¶2 셋째 문장	Last but not least, automation increases productivity and thus per capita income, which creates demands for new goods and services	Last but not least · 계속적 which
◆	123쪽 ¶3 첫 문장	we can always collectively decide to create more jobs through policy measures	요약문 1순위
★	123쪽 ¶3 둘째 문장	It has been a standard practice at least since the 1930s that, in an economic downturn … the government increases its spending	1930년대 · 가주어 it + that절
★	123쪽 ¶3 셋째 문장	went as far as paying a high proportion of the wages of 'redundant' workers to keep them from being sacked (up to 80% in the case of the UK government's 'furlough scheme')	숫자 · keep A from -ing
▲	123쪽 ¶3 넷째~다섯째	governments can also create – and have created – jobs through regulations … carers per resident in nursing homes	규제로 만드는 일자리 · 「Chilli」
◆	123쪽 ¶4 첫 문장	it is impossible to say that automation in one particular area … reduces overall employment or not	with + O + 전치사구 · 단정하지 않음
◆	123쪽 ¶4 둘째 문장 (124쪽 첫 줄까지)	(however many of them may have been less than ideal, even hazardous or oppressive) … suggests that the overall impact of automation on jobs so far has not been negative	suggests = 저자의 판단 · 주어 the fact → suggests

내용

그러나 평론가 계층 사이에 새로 생긴 자동화 공포에 휩쓸려서는 안 된다. 자동화는 지난 250년 동안 우리와 함께해 왔지만, 우리는 미래에 대해 예측되는 규모의 대량 일자리 파괴를 본 적이 없다. 자동화는 일자리를 없애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만들기도 하기 때문이다. 우선 자동화 자체가 새 일자리를 만든다. 예컨대 로봇이 딸기 따는 일자리를 없앨 수 있지만, 자동화는 로봇 엔지니어, 로봇을 만드는 노동자, 로봇 부품을 만드는 노동자에 대한 수요를 만든다. 또 자동화는 산출 단위당 필요한 노동을 줄일 수 있지만, 제품을 싸게 만들어 그 수요를 늘림으로써 전체 노동 수요를 늘릴(그래서 일자리를 더 만들) 수도 있다. James Bessen의 연구에 따르면 19세기 미국에서 자동화는 천 1야드를 만드는 데 필요한 직조 노동의 98%를 없앴지만, 값이 내려 면직물 수요가 크게 늘어난 덕분에 직조공의 수는 오히려 네 배로 늘었다. 다음으로 자동화의 간접적인 일자리 창출이 있다. 컴퓨터와 인터넷의 출현은 (이제 우리 대부분이 온라인으로 직접 여행을 예약하므로) 여행사 일자리를 많이 없앴을지 모르지만, 여행 산업에 다른 일자리 – 예약 사이트를 운영하는 사람, Airbnb 같은 곳을 통해 숙소를 빌려주는 사람, 인터넷으로 광고할 수 있어서 비로소 손님을 충분히 모으는 소규모 전문

투어의 가이드 — 도 만들었다. 마지막으로 중요한 것은, 자동화가 생산성과 그에 따른 1인당 소득을 높이고, 그것이 더 다양하고 '더 높은' 필요를 채우는 새 상품과 서비스에 대한 수요를 만들어 고등 교육, 오락, 패션, 그래픽 디자인, 미술관 같은 새 일자리를 낳는다는 점이다. 게다가 우리는 언제든 정책으로 일자리를 더 만들기로 함께 결정할 수 있다. 적어도 1930년대 이후로는, 경기 하강기에 민간 기업이 (투자나 일자리를 줄여) 지출을 줄이면 정부가 지출을 늘려 경제의 수요 수준을 끌어올리고, 그것이 민간 기업에 노동자를 해고하지 않거나 새로 고용할 유인을 주는 것이 표준 관행이었다. 코로나19 팬데믹 동안 많은 부자 나라 정부는 '남아도는' 노동자가 해고되지 않도록 그 임금의 상당 부분을 대신 지급하기까지 했다(영국 정부의 '휴직 제도(furlough scheme)'는 최대 80%). 정부는 규제로도 일자리를 만들 수 있고 실제로 만들어 왔다. 정부가 교육(학교의 학생당 교사, 어린이집의 아동당 보육 인력), 의료(병원의 환자당 의사나 간호사), 노인 돌봄(요양원의 거주자당 돌봄 인력)에서 서비스를 받는 사람당 더 많은 노동자를 요구하는 규제를 도입하면 그 산업에 일자리가 더 생긴다. 그리고 코로나19 팬데믹에서 보았듯 바로 이 부문들이 좋은 서비스를 위해 사람을 더 고용해야 하는 곳이다(「Chilli」 참조). 이 모든 힘이 서로 다른 방향으로 당기고 예측할 수 없게 작용하며 오랜 기간에 걸쳐 펼쳐지므로, 딸기 수확이든 면직물 짜기든 언론이든 어느 한 분야의 자동화가 전체 고용을 줄이는지 아닌지 말하기는 불가능하다. 그러나 250년 동안 자동화가 계속되는 내내 (그 가운데 많은 일이 이상과는 거리가 멀고 위험하거나 억압적이기까지 했을지라도) 대부분의 사람이 일자리를 가져 왔다는 사실은, 지금까지 자동화가 일자리에 미친 전체 영향이 부정적이지 않았음을 시사한다.

어법

- **But we shouldn't be swept up by the new-found panic about automation among the commentariat class** : be swept up by ~ = ~에 휩쓸리다(수동). shouldn't = ~해서는 안 된다(충고).
- **This is because automation does not only destroy jobs, it also creates them** : This is because + 원인(앞 문장의 까닭). not only A, (but) also B — 원서는 but 없이 쉼표로 두 절을 이었다. them = jobs.
- **automation may reduce labour requirement per unit of output, but it may also increase the overall labour demand (and thus create more jobs) by making the product cheaper and thus increase the demand for it** : may ~, but ... = 양보. by + 동명사(making) · make + O + 형용사(cheaper). 끝의 increase는 원서 표기 그대로(making과 나란히 놓으려면 increasing).
- **automation eliminated 98% of the weaving labour required to produce a yard of cloth, but the number of weavers actually grew by four times** : required = labour를 꾸미는 과거분사. the number of + 복수명사 = 단수 취급(a number of + 복수명사 '많은 ~'와 구분). grow by four times = 네 배로 늘다.
- **The advent of the computer and the internet may have destroyed many travel agency jobs ..., but it has also created other jobs in the travel industry** : may have p.p. = ~했을지도 모른다(과거에 대한 추측, 양보의 뜻). it = the advent(단수) → has created.
- **Last but not least, automation increases productivity and thus per capita income, which creates demands for new goods and services** : Last but not least = 마지막이지만 중요한 것으로. which = 앞 절(생산성 · 1인당 소득 증가)을 받는 계속적 용법 → 단수 creates.
- **many rich-country governments went as far as paying a high proportion of the wages of 'redundant' workers to keep them from being sacked** : go as far as -ing = ~하기까지 하다. keep A from -ing = A가 ~하지 못하게 하다. being sacked = 수동 동명사.
- **With all these forces at play, pulling in different directions, acting in unpredictable ways and unfolding over a long period, it is impossible to say that automation in one particular area ... reduces overall employment or not** : with + O + 전치사구(at play) = 부대상황. 분사 셋(pulling · acting · unfolding) 병렬. 가주어 it + 진주어 to say.

단어·표현	뜻	유의어	반의어(반전 후보)
new-found	새로 생긴	recent	long-standing
destruction	파괴	elimination	creation
eliminate	없애다	remove	add
weaver	직조공	—	—
advent	출현	arrival	disappearance
accommodation	숙소	lodging	—
specialized	전문화된	specialist	general
productivity	생산성	efficiency	—
per capita	1인당	per head	—
downturn	경기 하강	recession	upturn
sack	해고하다	dismiss	hire
unpredictable	예측할 수 없는	erratic	predictable
hazardous	위험한	dangerous	safe
oppressive	억압적인	tyrannical	—

내용 일치 평론가 계층의 새 공포에 휩쓸리지 말 것 · 250년 동안 예측되는 규모의 대량 파괴는 없었음 · 자동화는 일자리를 만들기도 함 / 직접: 로봇 엔지니어 · 로봇 · 부품 생산 노동자 · 값이 내려 수요가 늘면 전체 노동 수요 증가 가능 · Bessen: 19세기 미국 · 천 1야드당 직조 노동 98% 감소 · 직조공 4배 / 간접: 여행사 일자리 감소 · 예약 사이트 · Airbnb · 소규모 전문 투어 가이드 · 생산성 · 1인당 소득 증가 → 고등 교육 · 오락 · 패션 · 그래픽 디자인 · 미술관 / 정책: 적어도 1930년대부터 경기 하강기의 정부 지출 · 코로나19 영국 휴직 제도 최대 80% · 인력 기준 규제(교육 · 의료 · 노인 돌봄, 「Chilli」) / 한 분야의 자동화가 전체 고용을 줄이는지는 말할 수 없음 · 250년 동안 대부분 일자리를 가짐 → 지금까지 전체 영향은 부정적이지 않음(suggests — 저자의 판단). **밑줄 의미** swept up by the new-found panic = 갑자기 번진 공포에 휩쓸리다 / does not only destroy jobs, it also creates them = 장 후반 논증의 중심 명제 / by making the product cheaper = 값이 내리면 수요가 늘어 일자리가 늘 수 있다 — Bessen의 직조공 / 'higher' needs = 기본적인 필요를 넘어서는 교육 · 문화의 필요 / collectively decide = 사회가 함께 정책으로 정할 수 있다 / so far has not been negative = 미래를 단정하지 않고 지금까지로 한정한 판단 / 지칭: 122쪽 ¶5 them(creates them) = jobs / 123쪽 ¶1 it(may also increase) = automation · it(demand for it) = the product / 123쪽 ¶2 it(has also created) = the advent of the computer and the internet · they(can advertise) = small, specialized tours / 123쪽 ¶3 them(keep them from) = 'redundant' workers · it(will create) = a government · these(are exactly the sectors) = 교육 · 의료 · 노인 돌봄.

> **한 줄 요약** 자동화는 250년 동안 일자리를 없애는 한편 직접 · 간접으로 만들어도 왔고 사회는 정책으로 일자리를 더 만들 수도 있으므로, 지금까지 자동화가 일자리에 미친 전체 영향은 부정적이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16-6 '이번엔 다르다'? – 실직자 지원과 자동화를 있는 그대로 보기 124쪽 ¶1 ~ 125쪽 ¶1

원문 위치 원서 124쪽 ¶1 ~ 125쪽 ¶1 — 원서를 펴고 문장마다 [1] [2] … 번호를 연필로 매긴 뒤, 아래 자리에 기호를 직접 표시한다.

기호	위치	원서에서 찾을 말	왜 이 자리인가
★	124쪽 ¶1 첫 문장	Some may say it is different this time around, as now machines are replacing workers in jobs that used to be unautomatable	반론 제시 · used to V
◆	124쪽 ¶1 둘째 문장	it is in the nature of technological progress that most people don't see it coming until it arrives	It is ~ that 강조 · 순서 문항의 출발
★	124쪽 ¶1 셋째 문장	If you told an upper-middle-class British lady in 1900 that most of her maids' work would be done by machines in a couple of generations, she would have laughed in your face	1900 · 조건절과 주절의 시제
▲	124쪽 ¶1 넷째 문장	But then came along washing machines, vacuum cleaners, microwave ovens, refrigerators, machines that produced ready-made meals and so on	then + 동사 + 주어 도치
★	124쪽 ¶1 다섯째~여섯째	a Japanese machinist in 1950 … a machine (lathe) controlled by another machine (a computer) … now CNC (computer numerical control) machines are standard	1950 · CNC · 125쪽 각주 vi
◆	125쪽 각주 vi	In his prophetic 1951 novel Player Piano, Kurt Vonnegut, the American sci-fi writer, depicted a world of unprecedented prosperity	1951 · 인물 – 어법 문항의 바탕
★	124쪽 ¶1 일곱째 문장	Fifty years into the future, many people may find it difficult to understand why so many people … thought so-called white-collar jobs were unautomatable	가목적어 it · may = 가능성
◆	124쪽 ¶2 둘째~셋째 문장	its impact on those who are made redundant is devastating … that is no consolation for those workers who have lost their jobs	강조의 does · 원서 표기(impacts … is)

기호	위치	원서에서 찾을 말	왜 이 자리인가
★	124쪽 ¶3 둘째 문장	the standard assumption among free-market economists, who believe that people are unemployed only because they don't want to work at going wage rates	자유시장 경제학자의 가정
▲	124쪽 ¶3 셋째 문장	without a range of state support, it is very difficult – if not totally impossible – for such workers to get the retraining needed for re-employment	가주어 · for + 의미상 주어 · if not
★	124쪽 ¶3 넷째~여섯째	unemployment benefit and income supports ... an affordable retraining system ... the so-called Active Labour Market Policy in countries like Sweden and Finland	세 가지 지원 · 통합 사고 빈칸
◆	124쪽 ¶4 첫 문장	Automation has come to be seen as 'the' destroyer of jobs when it isn't, in the same way in which strawberry has become 'the' berry despite being a non-berry	비유의 완성 · 제목 1순위
★	124쪽 ¶4 다섯째 문장 (125쪽 첫 줄까지)	Society can act to create new jobs, if it wants – through fiscal policies, through labour market policies and through regulation of certain industries	세 경로 — 일치
▲	125쪽 ¶1	Only when we see automation for what it is can we overcome technophobia ('automation is bad') and the sense of hopelessness among the young generation	Only when 도치 · see A for what it is

내용

어떤 이들은 이제 기계가 예전에는 자동화할 수 없던 일자리에서 노동자를 대체하고 있으니 이번에는 다르다고 말할지 모른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이 기술 진보가 닥칠 때까지 그것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한다는 것이 기술 진보의 본성이다. 1900년에 영국의 중상류층 여성에게 두어 세대 안에 하녀들이 하는 일 대부분을 기계가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면 그녀는 대놓고 비웃었을 것이다. 그러나 그 뒤 세탁기, 진공청소기, 전자레인지, 냉장고, 즉석식품을 만드는 기계 등이 나왔다. 1950년에 일본의 기계공에게 몇십 년 뒤면 그의 일 대부분을 다른 기계(컴퓨터)가 제어하는 기계(선반)가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면 그는 당신이 미쳤다고 생각했을 것이다. 그러나 지금 부자 나라의 공장에서는 CNC(컴퓨터 수치 제어) 기계가 표준이다(125쪽 각주 vi: 미국 SF 작가 Kurt Vonnegut은 예언적인 1951년 소설 Player Piano에서, 매우 효율적인 CNC 기계 덕분에 인간의 육체노동이 더는 필요 없는 전례 없는 번영의 세계를 그렸다. 그러나 그 세계에서 소수의 관리자 · 기술자 · 과학자를 뺀 대부분의 사람은 물질적 안락이 부족하지 않고 여가도 넘치는데도, 쓸모 있는 할 일이 거의 없고 무엇보다 자신이 사회에 쓸모없다고 느끼기 때문에 비참하다). 50년 뒤의 많은 사람은 21세기 초에 왜 그토록 많은 사람이 이른바 화이트칼라 일자리를 자동화할 수 없다고 생각했는지 이해하기 어려울지 모른다. 그렇다고 자동화가 일자리에

미치는 영향을 무시해도 된다는 말은 아니다. 자동화는 다른 일자리를 만들면서도 분명히 어떤 일자리를 없애며, 일자리를 잃은 사람에게 미치는 영향은 참담하다. 자동화가 장기적으로 전체 고용에 미치는 영향이 부정적이지 않더라도, 일자리를 잃은 노동자에게는 아무 위안이 되지 않는다. 이론적으로는 기계 때문에 기술이 쓸모없어져 일자리를 잃은 사람이 재훈련을 받아 다른 일자리를 얻을 수 있다. 이것이 사람들이 실업 상태인 것은 시세 임금으로 일하기 싫어서일 뿐이라고 믿는 자유시장 경제학자들의 표준 가정이었다. 현실에서는 폭넓은 국가 지원 없이는, 슈퍼마켓 진열대 채우기 · 사무실 청소 · 건설 현장 경비 같은 저숙련 일자리를 받아들이지 않는 한, 그런 노동자가 재취업에 필요한 재훈련을 받기는 완전히 불가능하지는 않더라도 매우 어렵다. 일자리를 잃은 노동자에게는 재훈련 과정을 버티게 해 줄 실업 급여와 소득 지원, 훈련 기관이나 훈련생(또는 둘 다)에 대한 정부 보조금을 뜻하는 저렴한 재훈련 제도, 그리고 스웨덴 · 핀란드 같은 나라의 이른바 적극적 노동 시장 정책(Active Labour Market Policy)이 제공하는 것 같은 (겉치레가 아닌) 실질적 구직 지원이 필요하다. 딸기가 베리가 아닌데도 '그' 베리가 된 것처럼, 자동화는 그렇지 않은데도 '그' 일자리 파괴자로 여겨지게 되었다. 우리는 자동화를 있는 그대로 볼 필요가 있다. 자동화는 일자리의 순 파괴자가 아니다. 게다가 기술이 일자리 수를 완전히 정하지도 않는다. 사회는 원한다면 재정 정책, 노동 시장 정책, 특정 산업의 규제를 통해 새 일자리를 만들 수 있다. 자동화를 있는 그대로 볼 때에만 우리는 세계를 떠돌기 시작한 기술 공포증('자동화는 나쁘다')과 젊은 세대의 절망감('우리는 필요 없어질 것이다')을 이겨낼 수 있다.

어법

- **Some may say it is different this time around, as now machines are replacing workers in jobs that used to be unautomatable** : as = 이유. used to + V = (예전에는) ~였다(be used to + 명사 '~에 익숙하다'와 구분).
- **But it is in the nature of technological progress that most people don't see it coming until it arrives** : It is ~ that 강조 구문(in the nature of technological progress를 강조). see + O + -ing(coming). until 시간 부사절 = 현재(arrives).
- **If you told an upper-middle-class British lady in 1900 that most of her maids' work would be done by machines in a couple of generations, she would have laughed in your face** : 조건절은 과거형(told), 주절은 would have p.p. — 1900년의 장면을 상상하며 그때의 반응을 말한 원서 표현(교과서식이라면 If you had told ...). would be done = 과거에서 본 미래 · 수동.
- **But then came along washing machines, vacuum cleaners, microwave ovens, refrigerators, machines that produced ready-made meals and so on** : 부사(then) + 동사(came along) + 긴 주어의 도치.
- **Fifty years into the future, many people may find it difficult to understand why so many people in the early twenty-first century thought so-called white-collar jobs were unautomatable** : find + 가목적어 it + 형용사 + 진목적어 to V. why ~ = 간접의문문(understand의 목적어).
- **It does destroy certain jobs even while creating others, and its impact on those who are made redundant is devastating** : 강조의 조동사 does + 원형(destroy). while + -ing = 접속사를 남긴 분사구문. 주어 its impact(단수) → is.
- **In reality, without a range of state support, it is very difficult – if not totally impossible – for such workers to get the retraining needed for re-employment** : 가주어 it + for + 의미상 주어 + 진주어 to V. if not ~ = ~까지는 아니더라도. needed = retraining을 꾸미는 과거분사.
- **Only when we see automation for what it is can we overcome technophobia** : Only + 부사절이 문장 앞에 오면 주절이 도치(can we overcome). see A for what it is = A를 있는 그대로 보다.

단어·표현	뜻	유의어	반의어(반전 후보)
unautomatable	자동화할 수 없는	—	automatable
machinist	기계공	mechanic	—
lathe	선반(공작 기계)	—	—

단어·표현	뜻	유의어	반의어(반전 후보)
devastating	참담한, 파괴적인	crushing	—
consolation	위안	comfort	—
obsolete	쓸모없게 된	outdated	up-to-date
retrain	재훈련하다	reskill	—
displaced	일자리를 잃은	dislocated	—
subsidy	보조금	grant	—
cosmetic	겉치레의	superficial	substantial
net	순(純)	—	gross
fiscal	재정의	budgetary	—
technophobia	기술 공포증	—	technophilia
haunt	떠나지 않고 괴롭히다	plague	—

내용 일치 '이번엔 다르다'는 반론 · 기술 진보는 닥칠 때까지 보이지 않음 / 1900년 영국 중상류층 여성(하녀의 일) → 세탁기 · 진공청소기 · 전자레인지 · 냉장고 · 즉석식품 기계 / 1950년 일본 기계공(컴퓨터가 제어하는 선반) → CNC가 부자 나라 공장의 표준 · 각주 vi: Kurt Vonnegut · 1951년 Player Piano / 50년 뒤엔 화이트칼라 일을 자동화할 수 없다던 생각을 이해하기 어려울지도(may) / 자동화는 일자리를 분명히 없애고 실직자에겐 참담 · 장기 전체 영향이 부정적이지 않아도 위안이 안 됨 / 자유시장 경제학자의 가정: 재훈련 · 실업은 시세 임금으로 일하기 싫어서 / 현실: 국가 지원 없이는 매우 어려움(저숙련 일말고는) · 실업 급여 · 소득 지원 · 저렴한 재훈련(정부 보조금) · 실질적 구직 지원(스웨덴 · 핀란드의 적극적 노동 시장 정책) / 결론: 자동화 = 순 파괴자 아님 · 사회가 재정 · 노동 시장 정책 · 규제로 일자리를 만들 수 있음 · 기술 공포증 · 젊은 세대의 절망 극복. **밑줄 의미** it is different this time around = 이번 자동화는 예전과 달리 일자리를 정말로 없앨 것이라는 반론 / laughed in your face = 그런 일은 상상도 할 수 없다고 여겼을 것 / thought you mad = 같은 뜻의 둘째 예 / no consolation = 전체 통계가 좋아도 개인의 고통은 그대로 / effective (not just cosmetic) help = 보여 주기가 아니라 실제로 일자리를 찾게 하는 지원 / see automation for what it is = 과장된 공포도 무시도 아닌 있는 그대로의 이해 / 'the' destroyer = 120쪽 ¶2의 '그' 베리와 짝을 이룬 비유 / 지칭: 124쪽 ¶1 it(see it coming · it arrives) = technological progress · she = the British lady · he · his = the Japanese machinist / 124쪽 ¶2 It(does destroy) · its = automation · that(is no consolation) = 장기 전체 영향이 부정적이지 않다는 점 / 124쪽 ¶3 who = free-market economists · They(need) = displaced workers / 124쪽 ¶4 It(is not a net destroyer) = automation · it(if it wants) = society.

> **한 줄 요약** 기술 진보는 닥치기 전에는 보이지 않으므로 '이번엔 다르다'는 말은 믿기 어렵지만 실직자에게는 국가의 지원이 필요하며, 자동화를 '그' 파괴자가 아니라 있는 그대로 보아야 기술 공포와 절망을 넘을 수 있다.

바른에듀케이션 실전 변형 모의고사 (원서 강독 평가 대비)

Edible Economics [Chapter 16 STRAWBERRY]

범위	Strawberry (원서 PDF 120~125쪽)	시간	40분	성명	

※ 객관식 16문항(90점) + 서답형 1문항(10점) = 100점. 지문은 원서 내용을 바탕으로 새로 쓴 글입니다. 유형 순서는 미추홀외고 지필평가 순서를 따릅니다. 끝난 뒤 '정답과 해설'로 채점합니다.

1. 다음 글에서 필자가 주장하는 바로 가장 적절한 것은? [5.4점]

None of this means we can ignore what automation does to jobs. It does wipe out some jobs even while it creates others, and for those made redundant the blow is devastating. Free-market economists assume that workers whose skills machines have made obsolete can simply retrain and find new work. In reality, without wide-ranging state support, retraining is extremely hard for them unless they settle for low-skilled jobs. Displaced people require benefits and income support while they retrain, an affordable retraining system funded by government subsidies and genuine help in finding work, like the Active Labour Market Policy of Sweden and Finland.

① Displaced workers should retrain on their own.
② The state must truly support displaced workers.
③ Automation should be slowed to protect jobs.
④ Displaced workers should take low-skilled jobs.
⑤ Unemployment is mostly a personal choice.

2. 다음 글의 제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5.4점]

Just as strawberry has become 'the' berry although it is not a berry at all, automation has come to be thought of as 'the' job destroyer although it is not. We need to see automation as it really is: it does not destroy more jobs than it creates. Nor does technology alone decide how many jobs there are; a society can create new jobs through fiscal policy, labour market policy and the regulation of particular industries. Only then can we overcome technophobia and the hopelessness of young people who fear they will no longer be needed.

① Why Strawberries Are Not Really Berries
② Technophobia: A Sensible Response to Robots
③ Technology Alone Decides the Number of Jobs
④ Young People Will Soon Be Replaced
⑤ Automation: Not the Job Killer We Think

3. 다음 글의 요지로 가장 적절한 것은? [5.4점]

We should not be carried away by the commentators' sudden panic over automation. Machines have been taking over human tasks for 250 years, yet we have never witnessed the large-scale job destruction now being forecast, because automation creates jobs as well as destroying them. So many forces pull in different ways over long periods that no one can say whether automation in one field lowers total employment. Still, most people have had jobs throughout two and a half centuries of automation, even if many of those jobs were far from ideal. This suggests that, so far, its overall effect on jobs has not been negative.

① So far, automation seems not to have cut jobs overall.
② Automation in journalism will soon reduce jobs.
③ Most of the jobs people have had were ideal.
④ The commentators' new panic is justified.
⑤ Automation rarely creates new jobs.

4. 밑줄 친 class hypocrisy가 다음 글에서 의미하는 바로 가장 적절한 것은? [6.0점]

Job losses caused by automation have been part of capitalism for centuries, and commentators writing for papers like the Financial Times have long scolded blue-collar workers who tried to delay labour-saving technology for fear of losing their jobs. Why, then, are these commentators suddenly anxious? The author smells class hypocrisy here. While they believed their own jobs were safe, they readily dismissed such workers as 'Luddites', after the British textile artisans who smashed the machines replacing them. Now that automation is reaching professions such as medicine, finance and even journalism, they have only now begun to fear losing their jobs to technology.

① Workers secretly welcome new machines.
② The Luddites were right to smash machines.
③ Critics fear automation once it reaches them.
④ White-collar jobs have always been safe.
⑤ Economists are more honest than journalists.

5. 밑줄 친 the fruit of the devil가 다음 글에서 의미하는 바로 가장 적절한 것은? [5.4점]

California, the top farming state in the US, grows more than 80% of America's strawberries, and the cheap labour behind them comes mainly from Mexico. Around 70% of the state's farm workers were born in Mexico, and at least half of them are 'undocumented', working in the country without legal status. To these workers, strawberry is the fruit of the devil. The plants grow low, only 4–5 inches tall on beds 8–12 inches high; pickers therefore have to bend constantly, 10 to 12 hours a day for weeks, which can lead to terrible pain and lifelong disability. Most are poorly paid and work in harsh conditions. Undocumented workers earn only about half what 'legal' workers get, and many suffer abuse, while employers know that these workers cannot turn to the police.

① a crop whose sweetness tempts people to eat too much
② a crop whose harvest is badly paid, exhausting and harmful work
③ a fruit that can be grown only by illegal workers
④ a fruit that brings farmers the highest profits
⑤ a fruit that tastes too sour outside its season

6. 밑줄 친 부분이 가리키는 대상이 나머지 넷과 다른 것은? [6.0점]

Strawberry is a highly labour-intensive crop, above all at harvest time. Unlike apples or grapes, strawberries often lie hidden, sometimes deep among the leaves, so ① they take time to find. Being soft, ② they bruise easily during picking, which means pickers must handle ③ them with care, and this makes harvesting slower still. In rich countries where wages are high, the heavy labour needed to pick ④ them is a serious problem for growers, since it can drive up the price of the fruit. Small farms close to main roads can partly cope by running 'pick your own' schemes, in which customers do the picking themselves, but this does not work for most farms. Instead, ⑤ they try to hold down labour costs by taking on cheap immigrant labour.

①
②
③
④
⑤

7. 다음 글의 내용과 일치하는 것은? [5.4점]

Automation creates new jobs directly. Robots may take away strawberry-picking jobs, for instance, but they will generate demand for robot engineers and for workers who make robots and their parts. Also, although automation may cut the labour needed per unit of output, it may raise the total demand for labour by making products cheaper and so increasing demand for them. James Bessen's research found that in the nineteenth-century US, automation cut by 98% the amount of weaving labour it took to make a yard of cloth. Yet four times as many weavers ended up being employed, because cheaper cotton cloth was in so much greater demand.

① 로봇은 딸기 따는 일자리를 늘릴 것이다.
② 자동화는 산출 단위당 필요한 노동을 늘린다.
③ James Bessen은 19세기 영국의 직조 노동을 연구했다.
④ 19세기 미국에서 직조공의 수는 네 배로 늘었다.
⑤ 면직물 값이 올라 면직물 수요가 크게 늘었다.

8. 다음 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5.4점]

Whether or not it is a berry botanically, most people around the world regard strawberry as 'the' berry. At the height of their season, top-quality strawberries are sweet and tasty enough to eat by themselves, but at other times they tend to be a little too sour, so people add sugar or, better still in the author's view, condensed milk. Bolder eaters pair them with balsamic vinegar, black pepper or both. At a British summer garden party, guests can expect strawberries covered in cream, a combination the author confesses he does not like. Strawberry, vanilla and chocolate make up the 'Holy Trinity' of flavours for ice cream, though most 'strawberry' ice creams contain no real strawberry. Eton mess, made of strawberries, cream and crushed meringue, was supposedly invented at Eton College.

① 제철의 가장 좋은 딸기는 그냥 먹어도 될 만큼 달고 맛있다.
② 저자는 딸기에 연유를 곁들이는 쪽을 더 낫게 여긴다.
③ 저자는 크림을 부은 딸기 조합을 좋아한다.
④ 대부분의 '딸기' 아이스크림에는 진짜 딸기가 없다.
⑤ Eton mess는 Eton College에서 만들어졌다고 전해진다.

9. 다음 글의 밑줄 친 부분 중, 어법상 틀린 것은? [6.0점]

In Player Piano, his 1951 novel, the American science-fiction writer Kurt Vonnegut ① depicted a world richer than any before it, ② where human physical labour is no longer needed because extremely efficient CNC machines do the work. Yet in that world most people, apart from a handful of managers, scientists and engineers, ③ are miserable. They do not lack material comfort and have plenty of free time; what makes them ④ unhappily is that they have little of value to do and, above all, that they feel ⑤ redundant to society. The author calls the novel 'prophetic' and mentions it alongside CNC machines, which have become standard in the factories of rich countries.

①
②
③
④
⑤

10. (A), (B), (C)의 각 네모 안에서 어법에 맞는 표현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5.4점]

It is not only strawberry pickers who fear that automation will cost them their jobs. These days it is hard to follow the news without (A) [telling / being told] that robots will soon take over most human work and leave most people jobless. Advances in artificial intelligence have made this fear especially strong, since AI technologies (B) [enable / enables] machines to take the place of the human brain, not merely our hands and muscles. In 2017 the Financial Times launched an interactive programme, (C) [which / what] let readers check whether a robot could do their job; it became a symbol of this worldwide anxiety. Some news media already use AI to write simple articles and to edit sports highlights.

	(A)	(B)	(C)
①	telling	enable	which
②	being told	enables	which
③	being told	enable	which
④	being told	enable	what
⑤	telling	enables	what

11. 다음 글의 밑줄 친 부분 중, 문맥상 낱말의 쓰임이 적절하지 않은 것은? [6.0점]

Over the last two centuries, farming in rich countries with costly labour has become highly ① mechanized: scythes, hoes and animal-drawn ploughs gave way to tractors, combine harvesters and even drones. Strawberry picking, however, has so far ② resisted machines, because the work demands judgement about where the fruit is hidden and whether it is ripe, as well as ③ delicacy, since the fruit bruises so easily. But this is changing. Several companies are now developing robot harvesters that can find strawberries, judge their ripeness and pick them without damaging them. The machines are not yet quite as ④ skilful as human pickers, but because they are steadily ⑤ declining, strawberry picking – the final frontier of farm automation – will soon be conquered.

①
②
③
④
⑤

12. 다음 빈칸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6.0점]

Automation also generates jobs indirectly. Computers and the internet may have wiped out many travel agency jobs, since most of us now arrange our trips online ourselves. Yet the same technologies have opened up other work in the travel business: people who operate booking websites, people who let out rooms through services like Airbnb, and guides who lead small tours on special themes, which attract enough customers only because they are advertised online. Finally, by raising productivity, automation raises income per head, and richer people demand new goods and services that satisfy more varied and 'higher' needs, such as fashion, entertainment, art galleries, graphic design and higher education. In this way, _____.

① automation can only destroy jobs in the travel industry
② online booking has made tour guides unnecessary
③ a technology that removes some jobs can give rise to others elsewhere in the economy
④ higher productivity reduces the demand for new goods and services
⑤ most new jobs require no human workers at all

13. 글의 흐름으로 보아, 주어진 문장이 들어가기에 가장 적절한 곳은? [6.0점]

As recently as a few decades ago, however, both of these were costly, so for most people jam was the only way to enjoy strawberries out of season.

Nowadays, imports from other climates and greenhouse cultivation let us eat strawberries at any time of year. (①) Jams are made from other fruits as well, such as raspberries, peaches and apricots, but to most people it is strawberry jam that counts as 'the' jam. (②) It is most often spread on buttered toast, but it can also go between slices of bread or inside a folded French crêpe. (③) For the author, the best use of it is on British scones with clotted cream, and he stays strictly neutral in the Devon–Cornwall quarrel over which goes on first. (④) Russians even add it to their tea, both to sweeten the drink and to soften its tannic taste. (⑤) The author thinks this quite clever, though he likes British milky tea too much to try it except occasionally.

14. 다음 글에서 전체 흐름과 관계 없는 문장은? [5.4점]

Scientifically speaking, strawberry is not a berry. ① Nor are blackberries and raspberries, while grapes, bananas, cucumbers, tomatoes, aubergines, watermelons and even chillies are berries in the botanical sense. ② Some fruits, such as cranberries, blueberries and gooseberries, are both called berries and actually are berries. ③ Botanists define a berry as a fleshy fruit with no stone that develops from one flower with a single ovary. ④ Several companies are now developing robots that can judge whether strawberries are ripe enough to pick. ⑤ A strawberry, by contrast, grows not from the ovary but from the receptacle holding it, and so falls into a type of fruit known as 'aggregate fruit'.

15. 주어진 글 다음에 이어질 글의 순서로 가장 적절한 것은? [5.4점]

Some may argue that this time is different, since machines now do jobs that once seemed impossible to automate. Yet most people fail to notice technological change until it is already here.

(A) Likewise, had you told a machinist in Japan in 1950 that a computer-controlled lathe would one day do most of his job, he would have considered you mad. Yet CNC machines are now standard in rich countries' factories.

(B) Fifty years from now, people may struggle to see why so many at the start of the twenty-first century were convinced that white-collar jobs could never be automated.

(C) If you had told a well-off British lady in 1900 that within two generations machines would do most of her maids' tasks, she would have laughed at you. Then came washing machines, vacuum cleaners, refrigerators and microwaves.

① (A) – (C) – (B)
② (B) – (A) – (C)
③ (B) – (C) – (A)
④ (C) – (A) – (B)
⑤ (C) – (B) – (A)

16. 다음 글의 내용을 한 문장으로 요약하고자 한다. 빈칸 (A), (B)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5.4점]

We can also decide together, as a society, to generate extra jobs through policy. Since at least the 1930s, governments have usually spent more when a downturn makes private firms cut investment and jobs, giving firms a reason to keep their staff or even take on new ones. When Covid-19 struck, many rich-country governments even paid a large share of the wages of workers who would otherwise have been laid off – up to 80% under the UK's 'furlough scheme'. Regulations can also create jobs: a rule requiring more teachers per pupil, nurses per patient or carers per care-home resident adds jobs in exactly the sectors that need more staff to deliver good services.

→ Beyond the jobs that automation itself creates, a society can, through (A) _____ decisions such as extra public spending, wage support and staffing rules, (B) _____ the number of jobs available.

① collective ..... increase
② collective ..... limit
③ private ..... increase
④ technological ..... reduce
⑤ individual ..... freeze

[서답형 1] 다음 글을 읽고 <QUIZ>의 (1)~(7)번에 해당하는 답을 <보기>에서 찾고, 그에 해당하는 알파벳 기호(A~Z)를 순서대로 나열하여 완성되는 한 단어를 쓰시오. (단, 대소문자 여부는 채점에 반영하지 않음.) [10점, 부분 점수 없음]

Strawberry harvesting takes so much labour that farms in rich countries rely on cheap immigrant workers. In California, which grows over 80% of America's strawberries, some 70% of farm workers were born in Mexico. Now strawberry-picking robots are close to commercial use, and fear of automation is spreading; in 2017 the Financial Times launched a programme inviting readers to ask whether a robot could do their job. Yet automation also creates jobs. In the nineteenth-century US, it cut the weaving labour needed for a yard of cloth by 98%, yet weavers became four times as numerous. Displaced workers still need help, such as the Active Labour Market Policy of Sweden and Finland. The author insists that automation does not destroy more jobs than it creates.

<QUIZ>

(1) Which US state grows over 80% of America's strawberries?

Answer for (1): _____

(2) In which country were some 70% of that state's farm workers born?

Answer for (2): _____

(3) In what year did the Financial Times launch its programme on robots and jobs?

Answer for (3): _____

(4) By what percentage did automation cut the weaving labour needed for a yard of cloth?

Answer for (4): _____

(5) By how many times did the number of weavers grow?

Answer for (5): _____

(6) Which countries' Active Labour Market Policy does the passage mention?

Answer for (6): _____

(7) Is it true or false that, according to the author, automation destroys more jobs than it creates?

Answer for (7): _____

<보 기>

A. 80%	N. 1900
B. 1950	O. Luddites
C. 2017	P. California
D. Devon	Q. 250 years
E. four times	R. Sweden and Finland
F. True	S. False
G. half	T. the US
H. Japan	U. Russia
I. Mexico	V. 1771
J. the final frontier	W. Eton mess
K. 98%	X. Financial Times
L. 1785	Y. 70%
M. the UK	Z. James Bessen

정답: _____

PART 4

파이널 – 손으로 복원한다

평가 2~3일 전. 눈으로 읽은 것은 시험장에서 반쯤 사라지고, 손으로 쓴 것만 남는다.

4-1. 핵심 문장 12선 – 우리말을 보고 영어로 쓰기

Part 2의 어법 포인트를 그대로 쓰는 문장들이다. 괄호 안의 단서를 활용해 쓴 뒤, 정답과 해설로 대조하고 틀린 자리에 표시한다.

01 딸기는 베리가 아니다. 블랙베리나 라즈베리도 그렇다. (Neither + 동사 + 주어)

02 제철에 나는 가장 좋은 딸기는 그것만 먹어도 될 만큼 달다. (형용사 + enough to V / 수동 부정사)

03 딸기는 바닐라, 초콜릿과 함께 아이스크림 맛의 삼위일체를 이룬다. (together with + 단수 동사)

04 대부분의 사람에게 제철 밖에 딸기를 맛보는 유일한 방법은 그것을 잼으로 만드는 것이었다. (the only way ~ was to V / make A into B)

05 캘리포니아 농업 노동자의 약 70%는 멕시코에서 태어났고, 그중 적어도 절반은 서류가 없다. (수량 표현 + of whom)

06 우리는 딸기를 딸 수 있는 로봇의 상업화를 눈앞에 두고 있다. (on the cusp of -ing)

07 자동화에 대한 이 세계적 불안을 상징하는 것이 Financial Times가 2017년에 내놓은 프로그램이다. (보어 도치)

08 평론가들은 블루칼라 노동자를 '러다이트'라고 비난하기가 쉽다고 여겼다. (find it easy to V / condemn A as B)

09 자동화는 일자리를 없앨 뿐 아니라 만들기도 한다. (not only A but also B)

10 많은 정부가 노동자들이 해고되지 않도록 그들의 임금을 지급하기까지 했다. (go as far as -ing / keep A from -ing)

11 그런 노동자들이 국가의 지원 없이 재훈련을 받기는 매우 어렵다. (가주어 it + for + 의미상 주어 + to V)

12 자동화를 있는 그대로 볼 때에만 우리는 기술 공포증을 이겨낼 수 있다. (Only when 도치 / see A for what it is)

4-2. 숫자 · 고유명사 복원표 — 보지 않고 채우기

서답형과 내용 일치 문항이 걸린 표다. 한 칸이라도 비면 Part 1-4로 돌아간다.

항목	답
딸기 '우유'의 재료 / 만든 사람	
식물학상 베리인 것(120쪽 ¶1)	
딸기가 자라는 곳 / 딸기가 속한 범주(각주 i)	
저자가 더 낫다고 보는 감미료 / 좋아하지 않는 조합	
아이스크림 맛의 '삼위일체'	
Eton mess의 재료 / 기원	
몇십 년 전까지 제철 밖에 딸기를 맛보는 유일한 방법	
저자가 꼽는 딸기잼의 최고 쓰임 / 각주 ii	
딸기 수확이 노동 집약적인 두 까닭	
손님이 직접 따는 방식	
캘리포니아의 미국 딸기 생산 비중 / 멕시코 출생 농업 노동자	
멕시코 출신 노동자들이 딸기를 부르는 이름	
포기 높이 / 두둑 높이 / 하루 노동	
미등록 노동자의 임금	
콤바인 발명 / 내연 기관 트랙터(각주 iii)	

항목	답
FT의 'Can a robot do your job?' / 최초의 완전 자동화(각주 iv)	
Bessen의 연구(19세기 미국)	
영국 '휴직 제도'의 임금 지급	
1900 · 1950의 예 / 각주 vi	
적극적 노동 시장 정책의 예	
사회가 일자리를 만드는 세 경로	

4-3. 통합 사고 문제 – 11장과 16장을 잇는 자리

문제

11장에서 저자는 복지 국가가 자본주의가 경제적 역동성을 좇으며 만들어 내는 피할 수 없는 불안정에 대처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되었고, 잘 설계하면 새 기술과 새 작업 방식에 대한 사람들의 저항을 줄여 자본주의 경제를 더 역동적으로 만들 수 있으며 북유럽 나라들이 그 가장 좋은 예라고 썼다(92쪽 ¶5, 「Strawberry」를 보라고 덧붙임). 16장에서 저자는 기계 때문에 일자리를 잃은 사람이 이론상으로는 재훈련으로 새 일자리를 얻을 수 있지만 현실에서는 폭넓은 국가 지원 없이는 매우 어렵다고 쓰고, 실업 급여 · 소득 지원, 저렴한 재훈련 제도, 스웨덴 · 핀란드의 적극적 노동 시장 정책 같은 실질적 구직 지원을 들었다(124쪽 ¶3). 이를 바탕으로, 아래 124쪽 ¶3 문장의 빈칸에 들어갈 원서 낱말(r로 시작하는 한 단어로, 같은 단락에서 두 번 더 쓰인 말)을 쓰고, 그 근거를 11장과 16장에서 하나씩 들어 영어 두 문장으로 쓰시오. (각 문장에 11장 또는 16장의 어휘를 하나 이상 포함할 것)

일자리를 잃은 노동자에게 필요한 것: Displaced workers need unemployment benefit and income supports that will see them through the _____ process.

근거 1

근거 2



BARUN

바른 가르침, 내일을 바꾸는 교육

We exist to change tomorrow for every student through right teaching.

바른에듀케이션 · 인천 남동구 논현동 · 010-9968-1387